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노수연 부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오종혁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김홍원 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이한나 연구원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요약

- ▶ 중국의 각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 산업,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 시대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방 양회(两会)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거나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당면과제인 △ 소비촉진 △ 산업구조 조정 △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함.
- ▶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나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15년 정책 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표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이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베이징 중관춘의 IT 창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의 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역별 「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추후 발표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중에서는 특히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을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가 인프라투자 사업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의 세부 조치와 지역별 투자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별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 육성 지원이 지역마다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함.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1

차 례

1. 중국 뉴노멀 시대의 도래
2. 2015년 지역별 경제정책의 조정
 - 가. 경제성장률 목표 조정
 - 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
 - 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3. 뉴노멀 시대의 주요 과제별 지역 대응전략
 - 가. 소비촉진
 - 나. 산업구조 조정
 - 다. 투자촉진
4. 평가 및 시사점
 - 가. 평가 및 전망
 - 나.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1. 중국 뉴노멀 시대의 도래

- 2014년 중국정부는 경제의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 시대의 도래를 천명하였음.
 - 2014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으로 ‘뉴노멀’을 언급한 데 이어 8월에는 인민일보가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사설을 발표함으로써 ‘뉴노멀’이 2014년 키워드로 부상함.
 - 특히 인민일보 사설은 중국의 뉴노멀 시대의 특징으로 △ 성장속도의 변화(增长速度换挡期) △ 구조조정의 어려움(结构调整阵痛期) △ 경기부양정책 이후의 문제해결(前期刺激政策消化期)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함.¹⁾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
-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11·5 계획기간(2006~10년)과 비교할 때 12·5 계획기간(2011~15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을 전망이며, 특히 12·5 기간 중에도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두드러짐.
 - 11·5 기간에는 모든 지역의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이 10% 이상에 달했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 특히 목표치를 4.9%포인트 초과 달성한 충칭을 위시하여 푸젠(4.8%포인트), 쓰촨(4.7%포인트), 네이멍구(4.6%포인트), 하이난(4.3%포인트), 후난(4%포인트), 톈진(4%포인트), 후베이(3.9%포인트), 산시(陝西, 3.8%포인트) 등 중서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초과 달성 수준이 높았음.
 - 그러나 12·5 기간에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지역이 13개로 줄어들 전망이며,²⁾ 허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역은 모두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목표 설정 당시에는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12·5 기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주를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악화라는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임.
 -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지역은 전체 31개 지역 중에서 17개 지역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베이징, 네이멍구, 상하이 11·5 기간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12·5 기간 중 2011~14년 동안 모든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1년 대비 2014년의 경제성장률 감소폭은 0.8~8.1%포인트에 달함. 이 중 성장률 감소폭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감소폭인 1.9%포인트보다 큰 지역이 27개에 달해 성장 둔화현상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짐.
 - 특히 11·5 기간에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역인 톈진, 네이멍구, 푸젠, 후베이, 후난, 광시, 하이난, 충칭, 쓰촨, 산시(陝西)는 2011년 대비 2014년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중국 전체보다 커 성장 둔화현상이 두드러짐.
 - 아울러 2014년에는 모든 지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015년 목표를 중국 전체 성장률인 7%보다 낮게 설정한 지역도 4곳에 달함.
 - 일반적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중국의 전체 성장률 목표를 하한선으로 삼아 해당 지역의 성장률 목표를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시(山西),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2014년 성장률이 낮은 지역은 성장률 목표를 전체 성장률보다 낮은 6.0~6.5% 수준으로 설정함.

1) 『人民日报』(2014. 8. 6), 「经济运行呈现新特征 — 新常态下的中国经济(中)」.

2) 2015년 목표로 설정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예측임.

표 1. 중국 지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기간 비교				12·5 기간 내 추이						
	11·5 기간(2006~10)		12·5 기간(2011~1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성장률 목표	
	성장률 목표	성장률 평균	성장률 목표	성장률 평균 예상치				목표치	증감 여부**		
베이징	9	11.4	8	7.6	8.1	7.7	7.7	7.3	7.5	7.0	▽
톈진	12	16	12	12.4	16.4	13.9	12.5	10.0	11.0	9.0	▽
허베이	11	11.7	8.5	8.5	11.3	9.6	8.2	6.5	8.0	7.0	▲
산시(山西)	10	11.2	13	8.6	13.0	10.1	8.9	4.9	9.0	6.0	▲
네이멍구	13	17.6	12	10.1	14.3	11.5	9.0	7.8	9.0	8.0	▲
랴오닝	11	14	11	8.4	12.2	9.5	8.7	5.8	9.0	6.0	▲
지린	12	14.8	12	9.4	13.8	12.0	8.3	6.5	8.0	6.5	(-)
헤이룽장	10	11.9	12	8.4	12.3	10.0	8.0	5.6	8.5	6.0	▲
상하이	9	11	8	n.a.	8.2	7.5	7.7	7.0	7.5	미발표	n.a.
장쑤	10	13.5	10	9.5	11.0	10.1	9.6	8.7	9	8.0	▽
저장	9	11.8	8	8.1	9.0	8.0	8.2	7.6	8.0	7.5	▽
안후이	10	13.4	10	10.7	13.5	12.1	10.4	9.2	9.5	8.5	▽
푸젠	9	13.8	10	10.9	12.3	11.4	11.0	9.9	10.5	10.0	▲
장시	11	13.2	11	10.5	12.5	11.0	10.1	9.7	10.0	9.0	▽
산둥	10	13.1	9	9.5	10.9	9.8	9.6	8.7	9.0	8.5	▽
허난	10	12.8	9	9.6	11.9	10.1	9.0	8.9	9.0	8.0	▽
후베이	10	13.9	10	10.8	13.8	11.3	10.1	9.7	10.0	9.0	▽
후난	10	14	10	10.4	12.8	11.3	10.1	9.5	10.0	8.5	▽
광둥	9	12	8	8.4	10.0	8.2	8.5	7.8	8.5	7.5	▽
광시	10	13.7	10	10.1	12.3	11.3	10.2	8.5	10.0	8.0	▽
하이난	9	13.3	13	9.5	12.0	9.1	9.9	8.5	10.0	8.0	▽
충칭	10	14.9	12.5	12.6	16.4	13.6	12.3	10.9	11.0	10.0	▽
쓰촨	9	13.7	12	10.7	15.0	12.6	10.0	8.5	9.0	7.5	▽
구이저우	10	12	12	12.4	15.0	13.6	12.5	10.8	12.5	10.0	▽
윈난	8.5	11.8	10	11.1	13.7	13.0	12.1	8.1	11.0	8.5	▲
티벳	12	12.4	12	11.9	12.7	11.8	12.1	10.8	12.0	12.0	▲
산시(陝西)	11	14.8	12	11.5	13.9	12.9	11.0	9.7	11.0	10.0	▲
간쑤	10	11.1	12	10.6	12.5	12.6	10.8	8.9	11.0	8.0	▽
칭하이	10	13.1	12	10.7	13.5	12.3	10.8	9.2	10.5	8.0	▽
닝샤	10	12.7	12	9.9	12.1	11.5	9.8	8.0	10.0	8.0	(-)
신장	9	10.6	12	10.8	12.0	12.0	11.0	10.0	11.0	9.0	▽
중국 전체	7.5	11.2	7	7 이상	9.3	7.7	7.7	7.4	7.5	7.0	▽

주: 1) 성장률을 특정 수치 '이상(以上)' 또는 '정도(左右)'로 설정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상' 또는 '정도'라는 표현을 삭제함.

2) * 12·5 기간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2011~14 실질 성장률과 2015년의 목표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대신함.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계획 기간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5개 연도 성장률의 산술평균값임.

3) ** 증감여부는 2014년 실질성장률 대비 2015년 목표성장률의 증감을 기준으로 함.

4) n.a.: 수치없음.

자료: 노수연(2011),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중국성별동향브리핑』, 11-11; 山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3), 『山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中国网』(2006), 『黑龙江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CEIC(검색일: 2015. 2. 16); 『人民网』(2015. 2. 13), 「31省GDP目标呈“新常态” 广东GDP总量连续26年居首」.

■ 지방정부도 뉴노멀 시대의 시작을 인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15년 2월에 완료된 지방정부별 주요 회의(两会)³⁾에서도 확인됨.

3) 지방정부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중국 중앙정부의 회의(两会) 일정에 앞서 1~2월에 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대회 2개 회의(两



- 지방 양회(地方两会)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를 비교·분석한 결과 16개 지역에서 ‘뉴노멀’이 키워드로 새롭게 선정되었음.
 - o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부패척결, 법치, 의법행정 등으로, 시진핑 정부가 시행하는 반(反)부패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총 17회).
- 또한 모든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의 주요임무로 ‘뉴노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主动适应经济发展新常态)’임을 밝힘.

표 2. 2015년도 중국 지역별 양회(两会) 키워드

지역	양회 키워드
랴오닝	의료개혁, 토지개혁, 토지유통(流转), 환경보호, 두 자녀 출산(单独二胎), 거류증, 법제개혁, 대기오염, 수도세 누진제(阶梯水价), 유류할증료
지린	공업기지진흥·상품곡물기지·변경연해·생태자원·과학교육인력의 5대 우위, 체제혁신 및 산업구조 조정·농업 현대화 및 신행도시화·창지투(창춘·지린·투먼) 전략·일대일로·녹색경제 및 환경보호의 5대 조치, 지린성 진흥, 민생개선, 개혁혁신, 4대 직무수행능력, 법치
헤이룽장	의료개혁, 법제개혁, 토지개혁, 두 자녀 출산, 거류증, 공무수행차량 구매 중단, 환경보호, 양로, 국유기업 개혁
베이징	대기오염, 교통체증 해소, 금연, 거류증 개혁, 뉴노멀 경제, 양로, 도시병, 타지 출신 근로자 쿼터(进京指标), 공무수행차량 구매 중단, 수도세 누진제, 두 자녀 출산
톈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발전, 자유무역구, 자주혁신시범구, 135 규획 건의, 뉴노멀 경제, 마이크로 기업, 마일리지 정착제도(积分落户), 환경보호, 9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및 운행 금지(小客车双限)
허베이	수도세 누진제, 두 자녀 출산, 스모그 처리 조례, 공무수행차량 구매 중단, 양로, 뉴노멀, 의약개혁, 비(非)공유 경제, 국유기업 개혁, GDP, 환경보호, 민생
산둥	도시병, 수도세 누진제, 두 자녀 출산, 공무수행차량 구매 중단, 스모그 처리 조례, 양로, 토지개혁, 의료개혁, 환경보호, 법제개혁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국제 금융·항공해운·무역·경제중심, 자유무역구 건설, 법치정부 건설, 특대형 도시인구 관리, 뉴노멀 시대의 사회 관리, 인재유치,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
장쑤	새로운 단계 진입, 혁신
저장	5대 수자원 문제 해결(五水共治), 노후한 주택공장 등의 개조와 불법건축물 철거(三改一拆), 스모그 문제 해결, 전자상거래, 농촌도로, 양로서비스, 의무교육, 8대 우위와 8대 조치(八八战略), 현대적인 농업, 정부의 간소화, 의료개혁
광둥	일대일로, 의료개혁, 두 자녀 출산, 뉴노멀 경제, 광둥성 동사북부, 법치, 환경보호, 공무수행차량, 주민소득, 식품안전
푸젠	자유무역구, 푸젠-대만 협력, 뉴노멀 시대 적응, 부패척결, 도시교통, 푸저우신구(福州新区), 해상실크로드
하이난	해상실크로드 건설, 일대일로, 국제 관광섬, 해양관광산업, 오염물 감축, 생태보상제도
산시(山西)	도시건설, 환경보호, 두 자녀 출산, 석탄개혁, 뉴노멀, 양로, 의료, 교육, 민생
안후이	뉴노멀, 법치, 대기오염 해결, 부패 및 오심(错案) 추궁제도
장시	개혁심화, 법치, 생태문명, 뉴노멀, 사회보장, 의료개혁,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 신행 도시화, 부패척결, 주택보장
허난	항공항구, 호적개혁, 농민의 도시진입, 두 자녀 출산 제도의 전면 시행, 상공업 개혁, 양로금, 남수북조(南水北调), 정저우-합부르크 국제철도 화물열차(郑欧国际铁路货运班列)
후베이	개혁 심화, 법치, 뉴노멀 경제, 창장경제벨트, 혁신, 생태문명, 민생
후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신행 도시화, 생태문명, 민생보장, 법치정부 건설, 3대 플랫폼, 경작지 오염처리 및 복구
광시	뉴노멀, 일대일로, 양대 핵(双核) 견인, 빈민구제, 고속철경제권, 현대적이고 특색 있는 농업, 의법행정, 생태문명, 신행 도시화
충칭	뉴노멀, 5대 기능구, 의약개혁, 비공유 경제, 내륙개방, 국유기업개혁, 개정판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출입, 환경보호

회)를 개최하고 정부업무보고 등을 통해 그해에 수행할 주요 정책을 발표함.

표 2. 계속

지역	양회 키워드
쓰촨	법치, 3대 발전전략, 빈민구제, 도시화, 4대 도시군, 1백만 저소득층 주택난해결사업(安居工程), 토지경영권 완화, 판시(攀西)전략자원혁신개발시험구
구이저우	뉴노멀, 5대 기능구, 의료개혁, 비공유 경제, 내륙개방, 국유기업개혁, 개정판 소비자권익보호법, 민생, 수출입, 환경보호
윈난	뉴노멀, 두 자녀 출산, 교육, 의료개혁, 국유기업개혁, GDP, 관광, 교통체증, 양로, 대기오염, 빈민구제, 소득분배, 취업
티벳	생태문명, 특화산업, 농목축업, 기초시설, 민생개선, 6대 강 유역의 녹화사업, 기본공공서비스, 개혁개방, 맞춤형 지원, 교육, 의료보건
네이멍구	도시건설, 환경보호, 두 자녀 출산, 석탄개혁, 뉴노멀, 양로, 의료, 교육, 민생
산시(陝西)	반부패, 도시화건설, 두 자녀 출산, 스모그 해결, 공무수행차량, 법치, 호적 제한 완화, 토지개혁, 의료개혁, 양로, 정부업무의 온라인 참여(网络问政)
간쑤	경제 전환과 비약적 발전,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법치 건설, 빈민구제, 민생개선, 문화번영 발전, 사회의 조화와 안정, 생태문명 건설
칭하이	안정 속의 진보 추구, 신행 도시화, 빈민구제와 개발, 정부의 간소화, 대중창업, 개혁혁신, 서부지역과의 융합 및 동부지역과의 연계(西融东联), 의법행정
닝샤	의료개혁, 토지개혁, 환경보호, 법치개혁, 개혁혁신, 프로젝트 건설, 구조조정, 난관 극복, 뉴노멀 시대 적응, 공간발전전략계획
신장	민생, 새로운 경제동력 육성, 사회안정 유지, 법치, 도농발전, 농목축업의 현대화

자료: 人民网, 聚焦2015地方两会(검색일: 2015. 2. 23); 中国安徽网络电视台, 2015安徽两会(검색일: 2015. 2. 24); 中国新闻社, 聚焦海南两会 热点 关注(검색일: 2015. 2. 24).

2. 2015년 지역별 경제정책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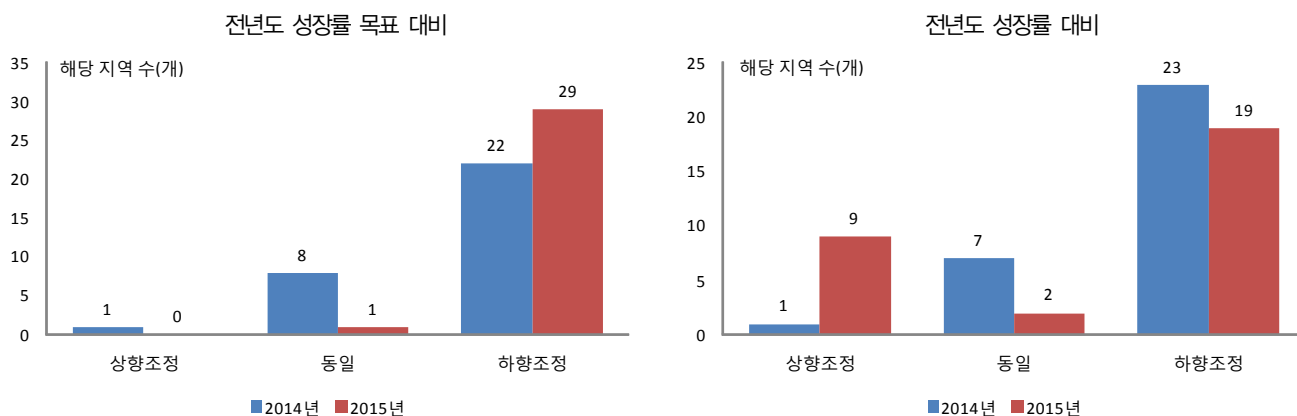
-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분석 결과, 지역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조정하거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가 화두가 되었음.

가. 경제성장률 목표 조정

- 티벳(2014년과 동일한 목표치 제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15년도 성장률 목표를 2014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했으며, 2014년 실제 달성한 성장률보다 상향 조정하는 지역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14년 성장률 대비 조정폭은 크지 않음(그림 1 참고).
- 2014년 성장률 목표와 비교해 2015년 목표를 하향 조정한 지역이 22개에서 29개로 늘어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기존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성장률 목표가 중국 전체 목표인 7%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지역도 베이징(7%), 허베이(7%), 산시(山西, 6%), 랴오닝(6%), 지린(6.5%), 헤이룽장(6%) 6개 지역에 달함. 이는 모든 지역의 2014년 성장률 목표가 중국 전체 목표인 7.5% 이상이었던 것과 차이가 남(표 1의 2015년 목표성장률 참고).
 - 또한 10% 이상의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도 2014년 16개 지역에서 2015년 5개 지역으로 크게 감소함.

- 2015년 목표성장률은 티벳(12%)이 가장 높으며, 푸젠, 충칭, 구이저우, 산시(陝西)가 모두 10%로 2014년과 동일하게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성장률 대비 2015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지역은 전년보다 8개 증가한 9개로, 해당 지역경제가 처한 성장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줌.
- 그러나 조정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2015년 목표치의 조정폭은 2014년 성장률 대비 1%포인트 내외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 소폭의 조정만을 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기존 경제의 안정을 깨지 않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임.

그림 1. 지역별 경제성장률 목표치 조정 특장별 지역 수



주: 상하이는 2015년 목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아 2015년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정지현(2014),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지역경제포커스, pp. 제8-12호.

-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년 실질성장률보다 상향 조정한 9개 지역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하며, 이 중에는 산시(山西), 랴오닝과 같이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지역도 포함됨.
- 북부에 위치한 헤이룽장, 랴오닝,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산시(陝西)와 서남부에 위치한 윈난, 티벳이 있으며, 동부 연해지역으로는 유일하게 푸젠이 포함됨.
- 이 중 티벳(1.2%포인트)과 산시(山西, 1.1%포인트)의 실질성장률 대비 목표성장률의 증가폭이 가장 높음.
- 그러나 윈난, 산시(陝西), 네이멍구, 푸젠, 티벳이 모두 2014년에 7.8% 이상의 양호한 성장을 보인 데 반해 산시(山西), 랴오닝, 헤이룽장의 성장률은 6%에도 미치지 못해 31개 지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함.
- 특히 2014년 급격한 경기둔화가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인 산시(山西), 헤이룽장, 랴오닝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을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로 보고 구조개선을 시도함.
- 산시(山西)는 석탄산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석탄가격 하락이 직접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했고,⁴⁾ 헤이룽장 역시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되면서 원유가격의 하락과 생산량 감소, 석탄 과잉생산 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⁵⁾ 랴오닝 또한 자원형 산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높고, 노후한 공업기지의 개조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을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함.⁶⁾

4) 山西省人民政府(2015), 『山西省政府工作报告』.
 5) 黑龙江省人民政府(2015), 『黑龙江省政府工作报告』.
 6) 辽宁省人民政府(2015), 『辽宁省政府工作报告』.

-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년 실제 성장률과 동일하게 유지한 지역은 2014년 7개에서 지린과 닝샤의 2개로 감소했고, 기타 대부분의 지역은 현실을 감안해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나 변동폭은 크지 않음.
- 지린은 2013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2014년에는 산시(山西, 4.9%), 랴오닝(5.8%), 헤이룽장(5.6%) 다음으로 낮은 성장률(6.5%)을 기록함. 2015년에는 새롭게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치를 기존의 7%에서 6.5%로 낮춤으로써 현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함.
- 한편 상하이선 전국에서 최초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수치의 달성 여부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상하이선 최근 7%대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무리한 개혁이나 성장촉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경제규모 상위 10대 지역 중 허베이와 랴오닝을 제외한 8개 지역이 모두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으며, 경제규모 하위권에 해당하는 충칭, 티벳, 산시(陝西)는 목표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의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지역이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적극적인 개방과 투자,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 이는 2014년과 2015년의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해당 연도 최우선과제를 경제성장, 구조조정, 지역개발, 사회보장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임.
-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발전)을 제시한 지역은 2014년의 13개 지역에서 2015년에는 22개 지역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동부연해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뉴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성장이 핵심과제임을 입증함.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지역에는 푸젠,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후난, 네이멍구, 광시, 윈난, 티벳, 간쑤가 있음.
 - 2015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에 톈진, 허베이, 산둥, 장쑤, 저장 등 동부연해의 경제가 발전한 지역과 함께 허난, 장시, 후베이, 쓰촨, 칭하이, 구이저우, 닝샤가 포함됨.
- 그러나 경제성장의 방점을 고속성장보다는 뉴노멀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에 두고 있으며, 성장동력 분야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헤이룽장은 농업발전을 중시하고, 칭하이는 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구이저우는 혁신과 5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또한 같은 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중점분야에 변화가 있음. 푸젠은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시했던 반면, 2015년에는 투자와 소비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함. 후난은 2014년에는 개혁개방을 강조했으나, 2015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지역은 2014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에도 변화가 있음.
 - 베이징, 산둥, 장쑤, 저장, 쓰촨 등 2014년에 정부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구조조정을 지목했던 지역이 2015년에는 경제성장

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지역 수가 15개에서 2015년에는 5개로 크게 감소함.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지역에는 하이난, 안후이가 있으며, 산시(山西), 광둥, 산시(陝西)가 새롭게 추가됨.
- 하이난, 안후이, 광둥은 행정, 국유기업, 농촌, 조세재정 등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산시(山西)는 석탄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을 강조하였으며, 산시(陝西)는 2014년 중점분야 성장을 통한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던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운용을 조정하고 개혁을 심화할 계획임.
- 지역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역은 2014년 상하이, 허난, 산시(山西)에서 2015년에는 상하이, 베이징, 충칭으로 변경됨.
-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조성 중인 상하이는 2015년에도 이 시범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베이징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역간 협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충칭은 2013년부터 5대 기능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기능핵심구·도시기능확장구·도시발전신구·동북 생태발전구·동남 생태보호구로 구성된 이들 기능구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을 2015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 등 광역경제의 통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기(轉機)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각 지역에서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임.⁷⁾

■ 특히 모든 지역에서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지역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발표함.

- 일대일로는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실크로드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칭하는 용어임.
- 아직 중앙정부가 일대일로의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국제금융유한공사(CICC)의 추산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일대일로 관련 항목에 1조 6,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⁸⁾
- 대부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주변지역 또는 접경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지역 특화 산업을 일대일로 전략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기존 육로(一帶) 범위에 해당하는 서부 지역과 해상(一路)에 포함되는 화동·화남 지역 외에 동북부와 중부 지역도 일대일로 전략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음.⁹⁾

7) 창장경제벨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수연·박진희(2015), 「중국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조성계획의 핵심 사업 및 평가」,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연구, 제15-5호를 참고.

8) 『中国证券报』(2015. 1. 7), 「一帶一路规划进入最后冲刺 投资望达1.6万亿美元」.

9) 김영선(2015),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EP 아시아태평양실·구미유라시아실 공동 동향 세미나(2월 6일) 발표자료, <http://ceer.kiep.go.kr/research/data.cer/>(검색일: 2015. 3. 4).



표 3. 지역별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계획

구분	지역	거점 도시	주요 내용	
육로 (一帶)	서부	신장	우루무치(乌鲁木齐市), 카스(喀什)	- 우루무치에 아시아유럽 경제협력 시범구 설립 - 카스 종합보세구 설립
		칭하이	시닝(西宁), 하이둥(海东), 거얼무(格尔木)	- 시닝-방콕, 시닝-서울, 시닝-타이베이 국제항공편 개통 - 국제상업지구, 보세창고 등 설립
		간쑤	란저우(兰州), 바이인(白银), 주취안(酒泉), 자위관(嘉峪关), 둔황(敦煌)	- 란저우신구, 둔황국제문화관광도시, 중국실�크로드박람회를 결합하여 3대 전략으로 추진
		산시 (陕西)	시안(西安)	- 중앙아시아 국가 및 호주와 자원 탐사 협력 강화 - 국가항공도시시범구, 에너지거래센터 설립
		닝샤	-	-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을 바탕으로 닝샤 내륙개방형경제시범구 조성
		네이멍구	-	- 만저우리(满洲里)-얼렌하오터(二连浩特) 국가중점개발 개방시범구와 후룬 베이얼(呼伦贝尔) 중국러시아몽골 협력 선도구 발전 촉진, 중국몽골 박람회 개최
		충칭	-	- 창장(长江)경제권 주변 지역 협력 촉진, 청위경제구 일체화 추진 등
		쓰촨	-	- 현대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 청두신공항 등 공항 건설 추진, 국내외 항공노선 증편
		윈난	-	- 동남아시아 국가의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유치
해상 (一路)	화동	장쑤	취저우(徐州), 렴윈강(连云港)	- 물류 측면에서 항구를 중심으로 국제무역로 구축
		저장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윈저우(温州)	- 닝보-저우산항(舟山港) 일체화 추진, 연해 항구-이우(义乌) 국제내륙항 통합 건설 추진, 항구경제권 조성
	화남	푸젠	샤먼(厦门),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 샤먼 동남국제해운센터 건설 - 샤먼 신공항 건설 추진
		광둥	광저우(广州)	- 광저우항과 21개 항구, 해상항구연맹 조직 - 아세안 국가와 항구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적극 추진
	환발해	하이난	하이커우(海口), 쓰안(三亚)	- 남해 자원개발 서비스 기지, 해상지원기지 건설
신규 참여	동북	헤이룽장	-	- 동부연해에서 한국, 일본, 북미까지 국제 운수체계 구축 - 국제 통관운수 간소화 추진
		랴오닝	-	-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및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회랑의 핵심으로 지역 목표 설정
	중부	후베이	-	-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경제 투자 협력 강화 - 우한-아세안, 우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항공 운송 노선 건설
		허난	-	- 아시아유럽 벌크제품 무역물류센터, 실�크로드 문화교류센터, 에너지 저장 운송 거래센터 건설 추진

자료: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上海证券报』(2015. 1. 28), 「20省份全面布局“一带一路”今年进入实质操作阶段」.

3. 뉴노멀 시대의 주요 과제별 지역 대응전략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 소비촉진 △ 산업구조의 조정 △ 투자촉진을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과제와 관련해 2015년에 추진될 세부정책을 31개 성·시·자치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기회 발굴에 활용하고자 함.

가. 소비촉진

1) 소비시장 현황

- 중국은 기존의 수출,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투자,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소비시장 성장률은 12·5 규획기간(2011~15년) 내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임.
 - 중국정부는 경제의 중고속 성장기에 소비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2011년부터 12·5규획의 우선과제인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 확대, 민생보장, 소득분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소비주도로 전환되기에는 △ 소득격차 확대 △ 높은 주택가격과 금융시장의 미발달 △ 인구고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 취약한 중산층과 낮은 도시화율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¹⁰⁾
 - 실제로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척도인 전체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은 2011년 17.1%에서 2014년 1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비재판매액 증가율(15%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임.
 - 중국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세와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한 신규 구매능력 증대정책의 지체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2. 중국의 소비재판매액 규모 및 증가율



자료: CEIC Database.

-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의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텐진의 2014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이 6%로 최저치를 기록함.
 - CEIC 및 해당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2014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을 계산한 결

10) 한국은행(2012),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요인」, 국제경제정보, 제2012-30호, p. 1.

과, 톈진, 산시(山西), 저장, 후베이, 신장이 전년대비 5.3~8%포인트 하락했고, 푸젠, 산둥, 하이난, 구이저우, 티벳 등도 4%포인트 이상 증가율이 둔화되었음.¹¹⁾

- 특히 톈진의 2014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은 2011년 대비 12.7%포인트, 2013년 대비 8.0%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 이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매 제한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승용차 구매 제한조치의 영향으로 톈진의 2014년도 자동차 및 관련 상품의 소비가 급감했음. 2014년 식품 판매액이 218.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 판매액은 681.3억 위안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0.3% 감소했고, 자동차와 관련 있는 석유 및 관련 제품의 판매액도 48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음.¹²⁾
- 그러나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4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은 톈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상에 달해 추정치와 발표치 간에 괴리가 있음.
- 특히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증가율의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산시(山西), 저장, 후베이, 구이저우, 신장 등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11%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여 실제 통계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소비시장 성장 둔화가 심각한 지역들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지역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소비둔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해결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표 4. 2011~15년 지역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보고업무 발표치	2015년 증가율 목표
				추정치		2015년 정부보고업무 발표치		
				2011년 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	17.1	14.3	13.1	10.3	-6.8	-2.7	미발표	13.0
베이징	10.8	11.6	8.7	8.6	-2.1	-0.1	미발표	미발표
톈진	18.7	15.5	14.0	6.0	-12.7	-8.0	6.0	8.0
허베이	17.8	15.2	13.6	11.2	-6.6	-2.5	12.4	11.0
산시(山西)	17.6	15.5	14.0	8.0	-9.6	-6.0	11.3	10.0
네이멍구	18.0	14.6	11.8	9.9	-8.1	-2.0	10.6	11.0
랴오닝	17.5	14.9	13.7	11.5	-6.0	-2.2	12.1	11.0
지린	17.5	15.9	13.7	12.1	-5.5	-1.6	12.1	12.0
헤이룽장	17.6	15.6	13.8	n.a.	n.a.	n.a.	미발표	미발표
상하이	12.3	8.8	8.6	8.3	-4.0	-0.3	미발표	미발표
장쑤	17.5	14.7	13.4	n.a.	n.a.	n.a.	12.4	13.0
저장	17.4	13.0	12.0	6.4	-11.0	-5.6	11.7	미발표
안후이	18.0	15.8	14.0	11.9	-6.1	-2.2	13.0	12.0
푸젠	18.2	15.6	14.0	9.1	-9.1	-5.0	12.9	13.0
장시	17.9	15.6	13.6	12.1	-5.8	-1.5	12.7	12.5
산둥	17.3	14.6	13.4	9.9	-7.5	-3.6	12.6	12.5
허난	18.1	15.5	13.8	11.3	-6.8	-2.5	12.7	12.0
후베이	18.0	15.6	13.8	8.5	-9.5	-5.4	12.8	미발표
후난	17.9	15.1	13.8	11.8	-6.1	-2.1	미발표	12.0

11) 후베이와 산시(山西)는 CEIC database의 데이터와 산시성 연도별 정부업무보고 및 통계공보에서 발표한 수치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12) 天津市统计局(2015. 1. 21), 「2014年我市消费品市场情况」.

표 4. 계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보고업무 발표치	2015년 증가율 목표
				추정치				
				2011년 대비 증감율(%p)	전년대비 증감율(%p)			
광둥	16.3	11.7	12.2	12.0	-4.3	-0.3	11.9	12.0
광시	18.0	15.6	13.6	11.4	-6.6	-2.3	12.5	12.0
하이난	18.8	14.7	14.0	9.9	-8.9	-4.1	미발표	12.0
충칭	18.7	15.7	14.0	10.8	-7.9	-3.2	13.0	12.0
쓰촨	17.6	15.8	13.9	10.5	-7.1	-3.5	12.7	11.5
구이저우	18.1	18.5	14.0	9.0	-9.1	-5.0	12.9	13.0
윈난	19.5	15.6	14.0	n.a.	n.a.	n.a.	12.7	12.5
티벳	18.2	16.3	15.1	10.4	-7.8	-4.8	12.9	13.0
산시(陝西)	18.6	15.7	14.0	11.5	-7.1	-2.6	12.8	13.0
간쑤	18.2	15.7	14.0	10.9	-7.3	-3.1	12.6	12.0
칭하이	17.0	16.0	14.3	13.0	-4.0	-1.3	13.0	12.0
닝샤	18.3	13.7	12.4	10.3	-8.1	-2.2	미발표	10.0
신장	17.5	15.0	13.4	8.1	-9.4	-5.3	11.8	12.0

주: 1) CEIC database(검색일: 2015. 3. 8)를 기준으로 하며, CEIC에 2014년 소비재판매액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 중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판매액을 발표한 지역(랴오닝, 장시, 후베이, 광둥, 티벳, 간쑤, 신장)은 「정부업무보고」의 판매액을 활용함.

2) n. a.: 수치없음.

자료: CEIC Database;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2) 지역별 대응전략

■ 대부분의 지역이 소비시장 확대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2015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 목표는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소비촉진정책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촉진책을 중심으로 지역소비를 촉진할 계획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 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5개 지역(베이징, 헤이룽장, 상하이, 저장, 후베이)을 제외한 26개 지역 모두 중앙정부의 목표치인 13%와 같거나 더 낮게 책정하고 있음.
- 장쑤, 푸젠, 구이저우, 티벳, 산시(陝西)만이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동일한 증가율 목표를 발표함.
- 나머지 21개 지역은 목표를 8~12.5%로 잡고 있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움. 특히 2014년 소비시장 성장둔화가 심각했던 텐진과 산시(山西)는 2015년 목표를 각각 8%와 10%로 계획하고 있어 전년도 목표대비 4%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으며, 모든 지역 중 조정폭이 가장 큼.
-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해온 △ 소비능력 제고 △ 사회보장제도 완비 △ 소비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소비촉진책을 유지하는 것임.
- 2015년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의 소비촉진책은 12·5규획에서 강조해온 내수확대 전략과 함께 주민소득 증대, 취업 및 창업기회 증대, 소득분배, 사회보장제도 확대, 시장유통시스템 건설 강화 등 조치들과 일치함.
- 또한 2014년 10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확대와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 6대 소비영역(정보소비, 녹색소비, 주택소비, 관광·여가 소비, 교육·문화·체육 소비, 양로소비)의 촉진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2015년 지방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6대 소비영역을 강조함.
- 그 밖에 각 지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조치들이 일부 시행될 계획임.

■ (소비능력 제고) 소득분배 제도 개혁, 조세감면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구매력을 제고할 계획임.

- 장쑤, 광둥, 랴오닝, 쓰촨, 산시(山西) 등 지역에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화시켜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최저임금수준을 높여 소비능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함.
- 쓰촨은 2020년까지 주민 1인당 소득수준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여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중앙정부와 목표를 일치시키고, 매년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여 그 성장률이 14%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임.¹³⁾
- 광둥은 2018년까지 도농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대시키도록 함.¹⁴⁾
- 광둥과 쓰촨 외에도 산시(山西), 텐진이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을 발표할 계획임.
- 또한 조세감면 정책(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지역이 늘어남.
- 장시와 허난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정책의 적용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킬 것을 명시함.

■ (사회보장제도 완비) 소비 증대를 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들의 핵심 이슈, 그중 양로보험(養老保險)제도 개혁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주택조건 개선 및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조치들이 확대됨.

-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함.
- 대다수의 지역이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함께 기업 퇴직자 및 주민의 양로보험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주민 최저생계보장제도 유지를 중시함.
- 또한 서민용 저가주택인 보장성주택 건설과 주택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임대, 주택구매 등 소비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택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 윈난은 주택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고 △ 산시(陝西)는 주택보조금 수혜 조건을 완화하며 △ 산둥은 농민공을 주택보조금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임.
- 한편 저장과 닝샤에서는 보장성 주택 건설과 더불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같이 실시할 것임.

■ (소비환경개선) 환경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인프라 구축 및 확대 정책을 강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건설을 강조함.

- 2014년과 마찬가지로 네이명구(유통방식의 혁신), 신장(유통정보 및 전문시장 무역정보 플랫폼 건설, 농산물 유통·배송 등 인프라 강화), 쓰촨(도시 및 농촌 현대유통시스템 구축) 등 유통인프라가 부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이 지속됨.
- 산시(山西)는 도시 및 농촌 유통 기초인프라와 시장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후난은 비즈니스 물류단지화 표준화된 배송 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13) 쓰촨성은 2015년 2월 9일 「소득분배제도개혁의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四川省人民政府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实施意见)」을 발표함.

14) 광둥성은 2015년 1월 27일 「소득분배제도개혁의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广东省人民政府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实施意见)」을 발표함.



표 5. 2015년 중국 소비촉진정책 유형별 주요 추진 지역

정책 방향		해당 지역
소비능력 제고	소득분배제도 개혁	톈진, 장쑤, 광둥, 하이난, 랴오닝, 후난,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둥
	최저임금수준 제고	톈진, 광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허난, 후난, 산시(山西), 산시(陝西), 네이멍구, 신장, 쓰촨, 칭하이
	조세감면 정책(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베이징, 허베이, 장쑤, 푸젠, 하이난, 안후이, 장시, 허난, 산시(山西), 충칭, 후난, 후베이, 산시(陝西), 광시, 닝샤, 간쑤, 칭하이
사회보장제도 완비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산시(陝西), 광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쑤,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사회보장제도 확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랴오닝, 지린, 안후이, 장시, 후베이, 허난, 산시(山西), 충칭, 산시(陝西), 윈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쑤,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보장성 주택 건설 및 주택보조금 지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랴오닝, 지린, 안후이, 장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윈난, 구이저우, 티벳, 간쑤, 신장, 산둥, 칭하이
	양로보험제도 개선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하이난,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충칭, 산시(陝西), 광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쑤,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소비환경 개선	유통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지린, 후베이(농촌상품유통 조건 개선), 산시(山西), 충칭(현대물류기지 건설), 네이멍구, 광시(현대유통발전), 윈난, 구이저우, 신장, 산둥, 쓰촨

자료: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또한 6대 소비영역 중에서 특히 정보소비와 주택소비(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모바일 인터넷, 광대역 보급 확대 등 인터넷 기반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전자상거래 유통망의 구축을 지원함.
- 허베이는 정보소비 시범도시 건설 및 광대역 속도 보급을 추진하고, 장쑤와 푸젠은 스마트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정보 소비의 생산·생활·관리를 촉진하며, 기타 다수의 지역들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농촌 전자상거래 배송지원 등)을 강조함.
- 주택소비 분야에서는 2014년에 강조되었던 부동산 조정,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구매제한 등의 이슈들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시됨.
- 2014년 베이징, 상하이, 저장, 광둥, 허난, 충칭 등 지역에서 엄격한 부동산 조정정책 집행, 보장성주택 공급 시스템 구축, 주택용지 공급 확보 등을 강조했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만을 언급함.
-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주택소비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미니 부양책들이 이어질 것임.
- 베이징에서는 주택보조금 제도가 조정되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선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제한 규제가 폐지됨.
- 그 외 허베이, 후난, 후베이, 네이멍구에서 안정적인 주택소비를 강조하였고, 구이저우는 2,000억 위안 규모의 부동산 개발 투자를 계획함.

나. 산업구조 조정

1) 산업구조 현황

- 중국은 요소투입 위주의 2차 산업(제조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
 -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은 1990년대부터 약 20년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장 우선정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 이어 노동임금, 토지 등 요소가격의 상승, 생산성 개선속도의 둔화 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음.
 -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 간부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 실적(성장률 등)이 가장 우선시되어왔고, 각종 이해관계들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했음.
- 중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외부수요가 감소하고 요소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신산업 육성과 내수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외부수요가 급감하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도시화와 내수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 하면서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수준을 매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표 6. 2010~14년 중국의 최저임금기준 인상 지역 수 및 평균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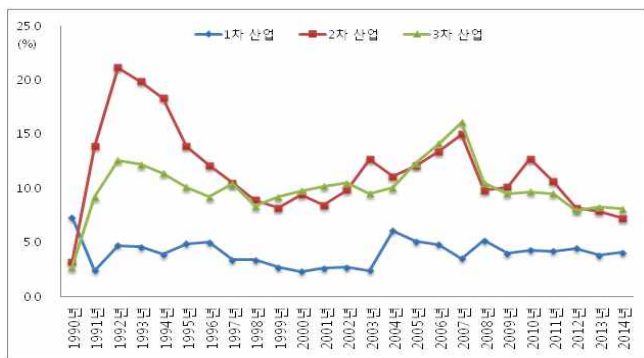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상 지역 수(개)	30	25	25	25	23
평균 인상률(%)	22,8	22	20,2	18	12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일일경제 동향」(2014. 1. 15, 2014. 12. 11) 참조.

- 또한 2011년 이후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지역 간 산업 재배치,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를 추진하고,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차세대 IT △ 바이오 △ 첨단제조 △ 신소재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자동차 7대 전략적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재편하고자 함.
- 뉴노멀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을 장려하면서 2012년 처음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상회하였음.
 -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회불안요인을 막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을 장려하였고, 2013년부터는 3차 산업의 성장속도도 2차 산업을 상회함.
 - 2014년 실시된 제3차 전국경제센서스(全国经济普查)에 따르면, 전체 법인 가운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5년 전보다 5.7%포인트 증가한 74.7%를 기록함.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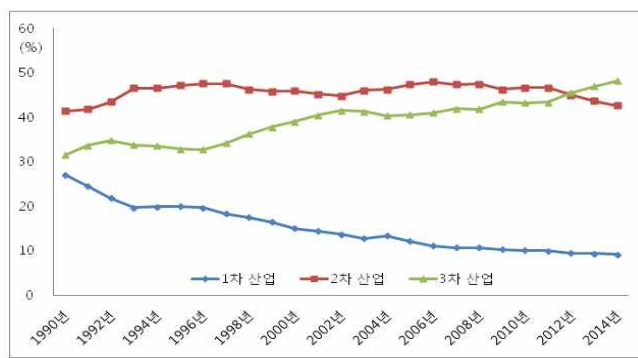
- 한편 동부지역은 3차 산업 비중 확대 추세가 뚜렷하지만 내륙지역은 2차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산업구조 변화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

그림 3. 중국 내 산업별 성장 속도 추이(1990~2014년)



자료: CEIC Database.

그림 4. 중국 내 산업별 비중 변화 (1990~2014년)



자료: CEIC Database.

2) 지역별 대응전략

-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 혁신(創新) △ 전략적 신산업 △ 서비스업 발전 등을 키워드로 제시함.
- 이들 키워드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2014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어, 새로 추가된 사항은 아니지만 2015년 그 비중이 확대되고 구체화됨.

표 7. 2015년 산업구조조정 계획 유형별 주요 추진 지역

키워드	정책 방향	지역수	지역
혁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의 산업화	17	베이징, 톈진, 상하이, 랴오닝, 지린, 허난, 후베이, 후난, 산둥, 충칭, 쓰촨, 네이멍구, 산시(陝西), 구이저우, 하이난, 산시, 장시
	창업기금 설립 및 금융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12	베이징, 톈진, 지린, 후난, 충칭, 쓰촨, 산시(陝西), 안후이, 장시, 허난, 장쑤, 푸젠
	중관촌 형태의 창업 단지 설립	15	베이징, 톈진, 헤이룽장, 지린, 저장, 푸젠, 장쑤, 후난, 구이저우, 저장, 윈난, 네이멍구, 산시(陝西), 칭하이, 안후이
	IT기술과 제조업 간의 융합	11	베이징, 랴오닝, 허난, 후베이, 허베이, 산둥, 저장, 광둥, 산시, 안후이, 장시
전략적 신산업 육성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고효율, 재활용 순환 등)	8	지린, 허베이, 저장, 산시, 충칭, 광시, 후난, 산둥
	차세대 IT(차세대 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신형 디스플레이 등)	15	지린, 장시, 신장, 안후이, 하이난, 푸젠, 광둥, 저장, 쓰촨, 광시, 후난, 상하이, 허베이, 톈진, 베이징
	바이오(바이오 의약, 농업, 제조)	15	랴오닝, 지린, 장시, 신장, 하이난, 푸젠, 광둥, 구이저우, 충칭, 광시, 허베이, 톈진, 베이징, 허난, 상하이
	첨단제조(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등)	14	랴오닝, 지린, 장시, 안후이, 산시, 광둥, 저장, 쓰촨, 충칭, 광시, 상하이, 톈진, 베이징, 장쑤
	신소재(고성능 복합소재 등)	10	지린, 신장, 산시, 푸젠, 충칭, 후난, 허베이, 베이징, 허난, 장쑤
	신에너지(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7	랴오닝, 장시, 산시, 푸젠, 후난, 허난, 장쑤
	신에너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등)	8	안후이, 하이난, 광둥, 쓰촨, 충칭, 광시, 허난, 상하이

15) 国家统计局(2014.12.16) 「第三次全国经济普查主要数据公报」.

표 7. 계속

키워드	정책 방향	지역수	지역
서비스업 발전	금융, 운송, 물류, 유통(전자상거래 포함)	24	랴오닝, 광시, 허난, 후베이,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 광시, 충칭, 쓰촨, 저장, 광둥, 네이멍구, 산시(陝西), 간쑤, 칭하이, 푸젠, 하이난, 안후이, 구이저우, 장시
	관광	8	랴오닝, 베이징, 톈진, 허베이, 저장, 네이멍구, 간쑤, 하이난
	IT	7	광시, 허난, 베이징, 허베이, 산둥, 광시, 광둥
	서비스 산업단지	9	장쑤, 푸젠, 안후이, 광둥, 쓰촨, 광둥, 네이멍구, 안후이, 장시
기타	농업 현대화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톈진, 산둥, 신장, 티벳, 칭하이, 안후이, 충칭, 베이징, 상하이 등
	자원구조 개선	3	산시, 헤이룽장, 랴오닝
	국제협력	4	푸젠, 헤이룽장, 톈진, 저장

주: 해당 주제가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되었지만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시킴.

자료: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혁신) 지역별 2015년 「정부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의 산업화 △ 창업기금 설립 및 금융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 베이징 중관촌(中关村) 형태의 창업 단지 설립 △ 새로운 IT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제조업 간의 융합 등이 제시되었음.

- 중국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중관촌'을 벤치마킹한 혁신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였음.¹⁶⁾
- 각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베이징, 톈진, 랴오닝, 산둥, 장시, 후베이, 후난 등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 혹은 공동 혁신 플랫폼 설립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또한 충칭, 지린 등에서는 과학기술 창업벤처펀드(科技创业风险投资基金)설립을 통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에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밖의 지역에서도 지적권 보호 강화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예정임.
- 헤이룽장, 톈진, 저장, 푸젠 등은 중관촌 형태의 창업단지 건설을 업무 내용에 추가하였으며, 기타 지역들도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시킴.
- 베이징, 후베이, 저장, 광둥 등은 새로운 IT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제조업과 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금융상품 혁신을, 톈진은 베이징과의 협력과 혁신인재 유치 등을 혁신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후난은 전 주민(全民) 창업을 주요업무에 포함시킴.

■ (전략적 신산업) 전략적 신산업은 125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반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의 신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

- 베이징은 차세대 이동통신, IT, 바이오, 신소재 등을, 상하이는 항공, 위성, 집적회로 분야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광둥성은 IT, 신에너지 자동차, LED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밖에 칭하이, 닝샤, 티벳 등 산업 규

16) 新华网(2014. 12. 3), 「国务院常务会议部署在更大范围推广中关村试点政策」.

모가 크지 않고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은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하지 않음.

- 충칭은 집적회로, 액정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로봇, 신소재, 신에너지 스마트 카, 세일가스, MDI 일체화, 바이오의약, 환경장비 등을 제시하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10대 전략적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밝힘.
- 산시성은 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등 신산업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의 자원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며, 쓰촨성과 저장성은 신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화를 위해 기업간 합병을 추진할 예정임.

■ (서비스업) 운송, 물류, 금융, 정보, 기술을 포함하는 생산형(生産性) 서비스업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의 주요 동력이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5월 상무회의에서 생산형 서비스를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함.¹⁷⁾
 -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GDP가 1%포인트 성장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가 130~150만 개로 늘어나 전체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고실업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음.¹⁸⁾
- 대다수 지역이 서비스업 발전 기조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산둥, 광둥, 푸젠, 광시, 쓰촨, 산시(陝西) 등에서 연구개발, 물류, 금융업 발전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킴.
- 베이징은 소비형 서비스업종인 헬스케어, 정보, 관광 등 6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추진함.
- 장쑤성은 서비스 산업단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스마트 장쑤'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고, 광둥은 광저우, 선전을 국가 서비스종합개혁 시범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금융, 과학서비스, 설계, 문화창의 등 생산형 서비스 발전을 주요 업무로 제시함.
- 관광자원이 풍부한 하이난, 후베이, 네이멍구 등에서는 관광서비스 육성을 제시함.

■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산시(山西), 헤이룽장, 랴오닝 등 자원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주력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원가격 개혁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산시(山西), 헤이룽장, 랴오닝 세 지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4.9~5.8%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인 비철금속, 전력, 화학 등이 자원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아 불황을 겪은 데 기인함.
- 이에 산시(山西)는 석탄 관련 고기술 확보 및 자원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며, 헤이룽장은 전방산업 확대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가스개발 협력을 모색하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방침임.
- 그러나 자원의존적 경제의 구조 전환은 장시간의 고도화 과정이 불가피하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 新华网(2014. 5. 14), 「李克强：五举措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 打造经济新引擎」.

18) 每日经济新闻(2013. 11. 7), 「李克强解读GDP数据：1个百分点带动130万人就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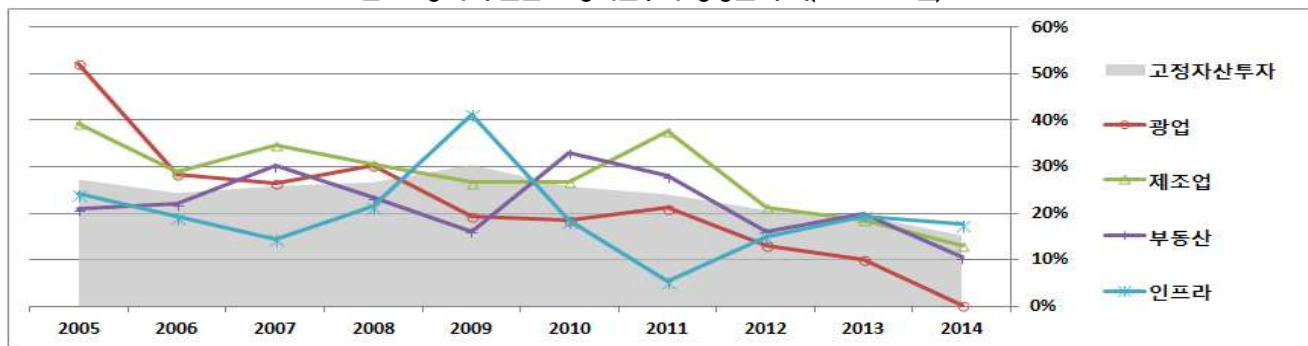
다. 투자촉진

1) 고정자산투자¹⁹⁾ 현황

■ 중국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은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중국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은 15.3%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5 참고).

- 2014년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50조 2,00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3% 성장을 기록하여 목표치(17.5%)에 2.2%포인트 미달하였으며, 이는 2013년 성장률 대비 4%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준임.
-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의 하락에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의 투자 성장률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고정자산투자를 제조업, 부동산업, 인프라 관련 업종, 광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²⁰⁾ 2014년 부문별 성장률은 각각 인프라 18%, 제조업 13.1%, 부동산업 10.5%, 광업 0.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년 성장률 대비 각각 1.7%포인트, 5.5%포인트, 9%포인트, 10%포인트 감소한 것임.
- 2009~13년간 부문별 비중을 계산한 결과²¹⁾ △ 인프라 29.7% △ 제조업 28.0% △ 부동산업 27.1% △ 광업 4.5%에 달해 제조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제조업 및 부동산업의 급격한 성장률 둔화가 2014년 전체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중국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추이(2005~14년)



- 주: 1) 음영표시는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성장률이고 꺾은선은 부문별 고정자산투자의 성장률임.
 2) 인프라투자의 경우 실질적인 인프라투자 성장률을 가늠하기 위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는 인프라투자(3차 산업의 일부만을 집계)가 아닌 업종별 고정자산투자통계 중 인프라와 관련된 7개 업종(전력·가스·수도생산공급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주민서비스 및 기타, 교육업, 보건·사회보장·복지업,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업)의 합으로 계산함.
 3) 세부업종별 투자 중 부동산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된 업종(건축업, 부동산업)의 2014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대체지표로 부동산투자 개발의 성장률을 사용함.

자료: 中国国家统计局(2005~13년 통계); 中国国家统计局(2015. 1. 20), 「2014年全国固定资产投资(不含农户)增长15.7%」; 中国国家统计局(2015. 1. 20), 「2014年全国房地产开发和销售情况」.

19) 중국국가통계국은 중국 고정자산투자액(全社会固定资产投资)과 농업가구를 제외한(不含农户) 고정자산투자액을 발표함. 본 보고서에서는 고정자산투자의 지역별·부문별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5년 3월 9일 기준으로 CEIC database에 발표된 2014년도 농업가구를 제외한(不含农户) 고정자산투자액을 활용함.
 20) 중국 국가통계국은 농업가구를 제외한(不含农户) 고정자산투자액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성된 17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부문별 추이 분석을 위해 이를 다시 제조업(制造业), 부동산업(建筑业, 房地产业), 인프라 관련 업종(电力燃气水的生产供应业, 交通运输/仓储和邮政业, 水利/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 居民服务和其他服务业, 教育, 卫生/社会保障和社会福利业, 公共管理和社会组织), 광업(采矿业)으로 구분함.
 21) 고정자산투자 부문별 투자집중도의 산출법과 지역별 현황은 [부록 표 2]를 참고.

■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지역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됨.

- CEIC Database를 이용하여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전년대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이 하락한 지역은 2013년의 18개에서 2014년에는 톈진, 네이멍구, 지린을 제외한 28개로 증가하여 투자성장률의 하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지역간의 투자 성장률 격차가 심해져서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2013년에는 5.0%와 30.6%로 양자간 차이가 25.6%포인트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최저가가 -13.8%, 최고가와 23.9%로 양자간 차이가 37.7%포인트로 확대되었음.
- 특히 헤이룽장, 랴오닝, 산시(山西), 윈난, 하이난 등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음.
 - 이들 지역은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임.
 - 산시(山西), 윈난, 하이난은 2013년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성장률은 각각 11.5%, 15.1%, 15.8%에 그쳤음.
 - 특히 랴오닝과 헤이룽장은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해 성장률이 각각 -1.5%와 -13.8%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성장률 대비 각각 16.6%포인트와 32.4%포인트 감소했음. 그러나 해당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관련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과 CEIC database를 근거로 계산한 추정치 간의 편차가 큰 지역도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CEIC Database를 근거로 계산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과 「정부업무보고」상의 발표치 간에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은 네이멍구, 광둥, 하이난, 쓰촨, 티벳, 신장 6곳임.
 - 이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발표 기준이 지방정부별로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일례로 두 성장률간의 편차가 8.2%포인트로 가장 큰 네이멍구의 경우, CEIC Database에서는 농업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고정자산투자액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계산한 반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투자규모 500만 위안 이상인 고정자산투자만을 대상으로 했음.
 - 또한 베이징의 경우 CEIC data를 근거로 계산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은 1.1%로 추정되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관련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베이징 통계국이 2015년 1월 발표한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은 7.5%에 달하는 등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8. 2011~15년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성장률 목표**		
				추정치		2015년 정부보고업무 발표치	2014년 목표치		
				2011년 대비 증감율(%p)	전년대비 증감율(%p)				
전체	26.5	20.9	19.9	15.1	-11.3	-4.8	15.3	15.0(▽)	17.5
베이징	12.3	9.9	12.1	1.1	-11.2	-11.0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톈진	19.4	12.4	15.0	15.2	-4.2	0.2	15.1	12.0(▽)	15.0
허베이	22.1	21.1	18.5	15.5	-6.6	-2.9	15.5	15.0(▽)	17.0
산시(山西)	23.7	25.6	25.2	11.5	-12.3	-13.7	11.5	16.0(▲)	20.0
네이멍구	18.0	14.6	19.8	23.9	5.9	4.1	15.7	13.0(▽)	15.0
랴오닝	15.4	23.5	15.1	-1.5	-16.9	-16.6	미발표	6.0(▲)	18.0
지린	-2.3	28.2	5.0	15.7	18.0	10.7	15.1	12.0(▽)	15.0
헤이룽장	13.8	31.0	18.6	-13.8	-27.5	-32.4	미발표	5.0(▲)	26.0
상하이	7.1	3.1	10.4	6.5	-0.6	-3.8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장쑤	51.1	15.8	18.1	15.5	-35.6	-2.6	15.5	15.0(▽)	17.0

표 8. 계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성장률 목표**		
				추정치	2015년 정부보고업무 발표치	2014년 목표치			
						2011년 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5년 목표치	2014년 목표치
저장	61.8	25.2	18.1	16.6	-45.1	-1.5	16.6	미발표	미발표
안후이	16.8	24.5	21.1	16.5	-0.3	-4.6	16.5	15.0(▽)	미발표
푸젠	31.0	25.9	23.5	19.0	-12.0	-4.5	18.8	18.0(▽)	18.0
장시	11.4	18.6	19.8	18.0	6.6	-1.8	18.0	16.0(▽)	18.0
산둥	37.5	17.0	18.3	16.0	-21.5	-2.4	15.8	15.0(▽)	17.0
허난	21.5	21.4	22.5	19.2	-2.4	-3.4	19.2	16.0(▽)	21.0
후베이	29.7	24.2	24.1	19.7	-10.0	-4.4	20.4	19.0(▽)*	20.0
후난	32.4	22.4	23.3	19.4	-12.9	-3.9	미발표	18.0(▽)	23.0
광둥	31.7	9.9	19.4	18.6	-13.2	-0.9	15.9	15.5(▽)	18.0
광시	18.8	23.3	21.8	16.7	-2.0	-5.1	16.7	16.0(▽)	18.0
하이난	27.2	29.1	27.2	15.8	-11.4	-11.4	13.2	12.0(▽)	20.0
충칭	19.4	16.9	19.5	17.9	-1.5	-1.6	18.0	16.0(▽)	미발표
쓰촨	23.7	20.8	19.5	14.7	-9.0	-4.8	12.0	10.0(▽)	13.0
구이저우	54.3	36.7	29.0	23.6	-30.7	-5.4	23.6	20.0(▽)	25.0
윈난	17.4	27.3	27.4	15.1	-2.3	-12.3	15.1	18.0(▲)	24.0
티벳	27.5	29.9	30.6	22.1	-5.4	-8.6	19.8	미발표	18.0
산시(陝西)	20.3	28.5	24.2	15.9	-4.5	-8.3	17.8	20.0(▲)	25.0
간쑤	37.8	30.2	27.1	21.1	-16.7	-6.0	21.1	20.0(▽)	25.0
칭하이	62.6	32.4	26.4	22.0	-40.6	-4.3	21.0	15.0(▽)	20.0
닝샤	22.9	27.9	26.8	20.0	-2.9	-6.8	19.4	15.0(▽)	20.0
신장	45.0	31.8	25.8	22.9	-22.1	-2.9	25.0	21.0(▽)	25.0

주: 1) CEIC database(검색일: 2015. 3. 8)를 기준으로 2011~14년의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을 계산함.

2)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일부 수치에는 차이가 있음.

3) * 후베이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고정자산투자 목표액만 발표했기 때문에 CEIC의 2014년 고정자산투자액 대비 2015년 목표액의 증감으로 2015년도 목표치를 계산함.

4) ** () 안의 표기는 2014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추정치 대비 2015년 목표치의 증감임.

자료: CEIC Database;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정지현(2014),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지역경제포커스.

2) 지역별 대응전략

■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27개 지역이 모두 2015년도 목표를 2014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이 중 22개 지역은 2014년 실제 달성한 성장률보다 소폭 하향 조정함(표 8 참고).

- 목표치를 제시한 27개 지역의 2015년 성장률 목표는 최소 6%에서 최대 21%로 지역간 편차가 크며, 2014년 목표치와 비교할 때 푸젠성만 동일한 목표치(18%)를 제시하고, 26개 지역은 모두 하향 조정했음.

- 2014년에 달성한 성장률과 비교해 2015년 목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지역도 산시(山西), 랴오닝, 헤이룽장, 윈난, 산시(陝西) 5개 지역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지역에서 2014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산시(山西), 랴오닝, 헤이룽장, 윈난, 산시(陝西)의 2015년 목표 성장률은 2014년 실제성장률보다 각각 4.5%포인트, 7.5%포인트, 3.5%포인트, 2.9%포인트, 2.2%포인트 높음. 그러나 이 중 헤이룽장과 랴오닝은 성장률 목표가 각각 5%, 6%로 27개 지역 중 가장 낮음.

- 2014년에 달성한 성장률과 비교해 2015년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지역 중에서는 칭하이(-6%포인트), 닝샤(-4.4%포인트), 신장(-4%포인트), 하이난(-3.8%포인트), 쓰촨(-3.6%포인트)의 조정폭이 비교적 큼.

■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대규모 교통인프라 투자 건설을 허가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는 추세임.²²⁾

- 뉴노멀 시대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수출과 소비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률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며, 경기조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투자임.²³⁾ 특히 인프라 투자는 부동산, 제조업과 달리 정부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최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²⁴⁾
-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4년 연말부터 철도 등 인프라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40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0조 위안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²⁵⁾
- 특히 2014년 4/4분기에 총 1조 1,651억 위안 규모의 교통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허가하고, 2015년 1월에도 약 1,193억 위안 규모의 11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등 교통인프라 건설을 중시함.

■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를 크게 교통, 에너지, 환경, 통신, 수자원 개발 및 홍수 예방을 의미하는 수리(水利)로 분류할 때, 철도·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계획되었고, 다음으로 에너지, 수리, 환경, 통신네트워크 건설이 강조됨(표 9 참고). 특히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 PPP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교통 부문 중에서 경전철/지하철 건설사업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산둥, 광둥 등 동부 연해에 위치한 경제가 발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임.
- 산둥은 2015년 1월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투자규모 약 440억 위안, 총길이 331.5km에 달하는 경전철 9개 노선 건설을 승인 받았음.
- 장쑤에서 추진 중인 쿤산(昆山)시 경전철 차량 및 쉬저우(徐州)시/쑤저우(苏州) 지하철 1호선 운영사업은 2014년 12월 재정부에서 지정한 30개 민관협력사업의 시범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존 운영자인 지방융자플랫폼회사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장려함.²⁶⁾
- 에너지 부문은 석유 및 자원 개발, 송유/가스관, 송배전시설, 화력, 풍력, 수력, 태양열, 원자력, 양수발전 등을 포괄하며, 주로 도시난방공급 사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음.
- 환경 부문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수(水)처리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소도시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됨.
- 2015년 1월 헤이룽장의 하얼빈(哈尔滨)시 재정부, 주중국영국대사관 및 영국·중국무역협회가 연합으로 'PPP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당시 오수 및 폐기물 처리 등 11개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43.2억 위안)에 대해 소개함.²⁷⁾

22) 中国投资协会项目投融资专业委员会(2014. 12. 9), 「十三五规划前瞻下的交通产业PPP合作模式」.

23) 『每日经济新闻』(2014. 12. 17), 「发改委四季度批复超万亿元项目 交通成主要发力点」.

24) 전반적인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계획을 보려면 인프라 이외에도 제조업, 부동산업 투자관련 계획을 모두 살펴봐야하지만, 민간주도 투자인 제조업과 부동산업 상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프라 위주로 살펴봄.

25) 김광수경제연구소(2015), 「줄어든 중앙과 지방의 GDP 통계오차」, 『중국경제』, 제15-5호, p. 7.

26) 财政部(2014), 「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 구이저우 통즈(桐梓)현 오수처리사업의 경우(투자규모 1억 7,400만 위안)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민간기업(北京桑德环境工程有限公司)이 낙찰받았으며, 지역 민관협력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함.²⁸⁾

표 9. 2015년 중국 각 지역의 분야별 인프라 계획

(단위: 억 위안, %)

지역	교통					에너지	환경	수리 (水利)	통신	민간자본 유치 추진사업
	철도	도로	경전철 지하철	항구	공항					
베이징		○	○	○			○			· 베이징신공항 건설사업(총투자 800억 위안)
톈진	○		○	○	○		○			·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 건설사업*
허베이	○	○		○		○	○	○		· 장자커우(张家口)시 도시난방공급사업*
산시(山西)	○	○				○	○	○		· 타이위안(太原)시 오수처리사업
네이멍구	○	○			○	○		○		· 시린궈리(锡林郭勒)맹 도시개발사업(교통/수도)
랴오닝		○				○	○	○	○	· 우순(无顺)시 오수처리사업*
지린	○	○			○	○	○	○		· 지린(吉林)시 수도공급사업 및 난방공급사업*
헤이룽장	○	○	○			○	○	○		· 하얼빈(哈尔滨)시 오수/폐기물처리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상하이	○	○	○	○			○			· 자딩(嘉定) 오수처리사업*
장쑤	○		○				○	○	○	· 쿤산(昆山)시 경전철차량* · 쉬저우(徐州)시/쑤저우(苏州)시 지하철 1호선 사업* · 수첸(宿迁)시/쉬저우(徐州)시/난징(南京)시/루가오(如皋)시 오수처리사업* · 쉬저우(徐州)시 수원관리공급사업*
저장	○		○	○			○			· 항저우(杭州)시 지하철 5호선/6호선 운영사업* · 항저우-하이닝(海宁) 광역전철 운영사업*
안후이	○	○	○				○			· 허페이(合肥)시 지하철 2호선 사업* · 안칭(安庆)시/마안산(马鞍山)시/츠저우(池州)시 오수처리사업*
푸젠	○	○		○	○			○		· 둥산(东山) 수로사업*
장시	○	○		○	○	○	○	○		· 지우장(九江)시 생태환경보호사업* · 난창(南昌)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산둥	○	○	○		○	○	○	○		· 차오저우(胶州) 해저터널운영사업* · 칭다오(青岛) 체육센터운영사업*
허난	○	○			○	○	○		○	· 신샹(新乡)시 경전철 건설사업 · 정저우(郑州航空港区) 수도공급· 오수처리사업
후베이	○	○			○	○	○	○		· 상시창장(香溪长江) 교량 건설사업
후난	○	○		○		○			○	· 상탄(湘潭)경제기술개발구 오수처리사업*
광둥	○	○	○		○	○	○	○		· 산터우(汕头)시 해저터널 건설사업
광시	○	○			○	○	○	○		· 수도/난방공급, 오수/폐기물 처리 등 217억 위안(15개 프로젝트)
하이난	○	○			○	○		○		-
충칭	○	○		○	○	○		○	○	· 지하철 3호선 운영사업*
쓰촨	○	○				○				· 시샹(西香)/용후이(永会)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이저우	○				○	○		○	○	· 통즈(桐梓)현 13개 오수처리사업
윈난	○	○			○	○	○	○	○	· 난밍허(南明河) 수질환경개선사업*
티벳	○	○			○	○				-

27) 『哈尔滨日报』(2015. 1. 30), 「哈尔滨市11个项目实施PPP模式」.

28) 『中国环境报』(2015. 1. 6), 「桑德国际签约污水处理PPP项目」.



표 9. 계속

지역	교통					에너지	환경	수리 (水利)	통신	민간자본 유치 추진사업
	철도	도로	경전철 지하철	항구	공항					
산시(陕西)	○	○				○		○		· 웨이난(渭南)시 도시난방공급시설 건설사업*
간쑤	○	○			○	○		○	○	-
칭하이	○	○	○		○	○	○	○	○	· 시닝(西宁市) 경전철 1호선 건설사업 · 타얼딩(塔尔丁)~컨터커크(肯德可克) 지방철도
닝샤	○				○	○		○		-
신장						○	○	○	○	-

주: * 표시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중 재정부에서 승인한 PPP 시범사업 프로젝트(총 1,800억 투자규모의 30개 프로젝트)에 속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규모와 분야를 명시함.

자료: 지역별 2015년 정부업무보고; 天津统计信息网(2015), 「2014年我市全社会固定资产投资情况」; 人民网(2015. 1. 27), 「2014年河北固定资产投资完成26671.9亿元 增15%」;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1. 30), 「吉林省2014年经济运行总体平稳」; 重庆市统计局(2015. 2. 3), 「2014年重庆投资逆势企稳」; 中国人民银行哈尔滨中心支行(2014), 「2013年黑龙江省金融运行报告」; 财政部(2014), 「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新浪财经(2015. 2. 4), 「各省份PPP项目都涉及哪些行业?」; 中国新闻网(2015. 2. 15), 「山西PPP模式今年将扩容 发力保障房建设」; 河南省政府采购网(2015), 「河南省政府和社会资本合作 (PPP) 推介项目名单 (第一批)」; 人民网(2015. 2. 4), 「湖北首个PPP项目通过“物有所值”评价」; 人民网(2015. 2. 5), 「汕头海湾隧道启动建设 中信地产PPP实践迈出坚实的一步」; 『中国环境报』(2015. 1. 6), 「柔德国际签约污水处理PPP项目」; 内蒙古新闻网(2014. 12. 28), 「世界五百强苏太华系千亿投资内蒙古」; 人民网(2014. 8. 29), 「青海首向民资开放千亿项目」; 中国投资指南(2015), 「南昌首批PPP模式项目清单 外资民资均可参与」; 『哈尔滨日报』(2015. 1. 30), 「哈尔滨市11个项目实施PPP模式」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세나 사회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2015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 목표를 발표한 26개 지역이 2015년 목표치를 모두 중앙정부의 목표치(13%)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중국이 2015년에 목표로 하는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26개 지역이 목표치를 중앙정부보다 소폭(1~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촉진정책 추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텐진, 산시(山西), 닝샤는 2015년 소비재판매액 증가율 목표를 각각 8%, 10%, 10%로 다른 지역보다 더 낮게 잡고 있어 2015년에 해당 지역의 소비시장 촉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반증함.
- 목표 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목표는 지역별로 중앙정부의 목표치(15%)와 큰 차이를 보이며(-9~5%포인트), 랴오닝, 헤이룽강과 같은 지역에서도 2014년의 급격한 투자둔화 현상을 감안한 파격적 목표수정 등 소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이루어짐.

- 또한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o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강조되는 소비와 투자의 2015년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2015년의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베이징에서 중관춘을 중심으로 한 IT 창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지역이 중관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의 민관협력사업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재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2009년 경기부양으로 인해 정부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부동산 투자개발 부진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을 의미하는 토지출양금(土地出让金)만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임.²⁹⁾
- o 중국의 토지는 국가 및 집단(集体)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을 은행대출의 담보물로 활용하거나 직접 매각하여 부족한 지방예산을 보충해왔으며, '토지재정' 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토지는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원이었음.
-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차입하여 각종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해왔으나,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모델로는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의 재무구조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 o 이에 따라 PPP 시범프로젝트 형태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인 자산의 지분 매각이나 사업체 매각도 PPP 시범프로젝트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프로젝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중앙정부 측에서 PPP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용자방식의 변화를 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방예산 지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정부 측에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임.³⁰⁾
- 그러나 PPP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o 한국의 PPP 운영경험으로 볼 때 과다수익 보장 등으로 인해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수익 보장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³¹⁾
- o 중국 언론에서도 과거 외자기업이 중국 수(水)처리 시장에 진출한 후 수익성 확대를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지방정부와 모종의 계약하에 운영손실액을 지방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³²⁾ PPP 사업 추진에 따른 외자 및 민간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우려하기도 함.

■ 중국 각 지역의 경제성장추세를 비교분석한 결과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9) 『财界』(2015. 2. 9), 「PPP模式”能否化解地方财政危机?」.

30) 『经济观察报』(2015. 2. 14), 「地方报送项目8000亿 银行慎对PPP」.

31) 기획재정부(2014. 2. 24), 「현 부총리,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 가져달라"」. 보도자료.

32) 『瞭望东方周刊』(2014. 4. 24), 「外资水务十年检讨」.

- 동북부에 위치한 이들 4개 지역은 2013년 이래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에너지·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국유기업 체제의 모순이 크게 부각됨.³³⁾
- o 에너지·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국유기업 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국가 특수정책과 부존자원에 의존하여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³⁴⁾
- 중국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의 구조개선이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 프로젝트와 개혁과제를 중앙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³⁵⁾
- o 2014년 6월 국무원은 이들 4개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방안(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을 제시하였고, 당시 계획한 139개 투자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2015년 착공을 준비 중임.
-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샤오스(徐绍史) 주임은 2015년 2월 26일 회의에서 139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과 미착공 사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요구하며 추진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구조조정과 투자프로젝트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2015년에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기간산업인 에너지·석탄·철강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o 하오후이룽(郝会龙) 헤이룽장 부성장(副省长)은 2015년부터 지역 원유생산을 연간 150만 톤 감산하고 철강·시멘트 생산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석탄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함.³⁶⁾

나. 시사점

-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 전자상거래의 고속 성장 △ 통신 및 문화·체육 소비 성장 가속화 △ 자동차 소비의 안정적 성장 △ 소비환경 개선 등을 꼽음.
- 정보소비의 일환으로 다수의 지역들이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책을 강조하고, 4G 보급과 휴대전화 등 통신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신 관련 분야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
- 자동차 소비 중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는 반면, 승용차 구매제한조치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출지역 선별 시 유의해야 함.
- o 승용차 구매 제한정책은 1994년 상하이에서 자동차번호판 경매제도의 형태로 처음 시행되었음. 이후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2010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했음. 2014년까지 베이징, 구이양, 광저우, 톈진, 항저우, 선전이 승용차 구매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충칭, 청두, 쑤저우, 정저우, 시안, 우한, 칭다오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³⁷⁾

3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5. 2. 27), 「国家发展改革委组织召开全面贯彻落实《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工作会议」.

34) 人民网(2015. 1. 21), 「辽宁蓝皮书: 2015年辽宁GDP增速7.0%左右」.

35) 中国经济网(2015. 2. 27), 「发改委: 2015年东北经济下行压力会更大」.

36) 中国经济网(2015. 2. 27), 「发改委: 2015年东北经济下行压力会更大」.

37) 『汽车商报』(2015. 2. 15), 「“双限”成中国大城市归宿?」.

- 양로보험 개혁, 양로서비스 확대정책 등이 각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고령화에 따른 양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우리기업의 진출 및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략적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므로,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선별, 전략적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제조업발전요강(2015~2025)'을 조만간 발표하고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변모를 꾀할 계획임.

- 중국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제조 분야로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 등의 전략적 신산업이 포함될 전망이며,³⁸⁾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전략적 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 지역별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우리가 육성하는 신산업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함.

○ 일례로 베이징과 대기질 개선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는 3월 환경 기술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임.³⁹⁾

○ 또한 한국정부는 광둥성과 산시(陝西)성 정부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측 신산업 분야의 기술 및 인력 교류뿐만 아니라 협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회와 위협 요인이 공존하므로, 구체적인 진출 지역이나 분야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내륙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지만 향후 도시화 추진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지방정부에서도 서비스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유지분 및 판매 분야 제한 등 제약요건, 지적권에 대한 의식 부족, 로컬 및 글로벌 기업간 경쟁격화 등 문제에 대해 진출 준비단계부터 유의해야 함.

○ 따라서 한·중 FTA 가서명 이후 진행될 후속협상에서는 지적권 보호를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강화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우대정책 여부를 지역별로 조사해볼 필요도 있음.

○ 각 지역에서도 고용확대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인 서비스업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시장에 진출할 경우 활용할 만한 우대정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아울러 우리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중국 현지정부가 고용자 1인당 교육훈련비나 기타 보험료 등을 제공하거나 직업교육을 대행해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협상에 활용할 필요도 있음.

■ 지금까지 중국 내 인프라건설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변화하고 있

38) 김광수경제연구소(2015), 「줄어든 중앙과 지방의 GDP 통계오차」, 『중국경제』, 제15-5호, p. 2.

39) 뉴시스(2015. 2. 10), 「서울시, 녹색·친환경 국내기업 중국진출 측면지원」.

는 중국의 정책기조를 활용하면서 지역 차원에서의 진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부 민간기업이 중국의 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주로 에너지부문에 진출하였으나, 입찰 및 투자 요건 제한 등 명시적·비명시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진출이 활발하지는 못하였음.
- 따라서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
 - 2015년 2월 가서명한 한·중 FTA에서는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GPA 가입 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해 두었음.⁴⁰⁾
- 한편 수(水)처리 부문은 외자기업의 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 중국과 프랑스의 합자사인 중국·프랑스 워터(Sino French Water, 中法水务投资有限公司), 프랑스의 베올리아 워터(Veolia Water), 영국의 템즈 워터(Thames Water) 등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이미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진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수에즈환경(suez environnement)과 홍콩의 신창젠그룹(新創建集團, NWS Holdings)이 1992년 합작하여 설립한 중국·프랑스 워터의 경우 중국 18개 지역(省市)의 약 2,000만 명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1월 발전개혁위원회를 위시하여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기초인프라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法)」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므로, 인프라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경우 관련 법안 내용 및 집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마련이 필요함.⁴¹⁾
- 중국정부의 투자프로젝트에 참여 시 정부 측의 계약조건 위배 가능성 및 투자분쟁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칭화대학 왕소칭(王守清) 교수는 PPP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不信用)’을 가장 우려하였다고 강조함.⁴²⁾
 - 투자분쟁의 원인으로 공급가격책정, 투자금 회수 및 보상계획 이행여부가 주로 지적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칭다오(靑島) 베올리아 수처리 프로젝트, 장춘(長春) 후이진(匯津) 수처리 프로젝트, 련장(廉江) 중국·프랑스 워터(中法水务) 수처리 프로젝트, 항저우(杭州灣) 해상대교 프로젝트 등이 있음.⁴³⁾

40)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보도자료.

41)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1. 20), 「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立法工作领导小组成立」.

42) 『经济观察报』(2015. 2. 14), 「地方报送项目8000亿 银行慎对PPP」.

43) 『经济观察报』(2015. 2. 14), 「地方报送项目8000亿 银行慎对PPP」.



부록

부록 표 1. 중국 지역별 2014, 2015년 정부업무보고의 주요 정책방향 비교

지역	2014년	2015년
베이징	①발전활력 자극, 전면적인 개혁심화 ②도시발전 난제 해결, 지속발전 수준 제고 ③혁신구동 강화, 경제구조조정 추진 ④신형도시화 추진, 도농발전 일체화 우선 추진 ⑤민생개선, 복지증진 ⑥정밀관리 강화, 도시서비스 수준 제고	①장진지 협력발전 추진 ②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③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④ '고급·정밀·첨단' 의 경제구조 구축 ⑤도시 발전구조 개선 ⑥도시발전 난제 해결 ⑦현실적인 사회보장 및 민생 개선
톈진	①아름다운 톈진 건설 가속화(산업고도화, 오염방지, 도시품질 제고) ②전면적 개혁심화, 개방확대(빈하이신구 종합개혁, 정부개혁, 국유기업 및 금융 개혁, 도농일체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등 ③사회사업·민생개선 촉진	①전면적인 개혁 심화, 개방 확대(톈진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정부 기능전환 확대; 대외개방 수준 제고; 지속적인 경제체제 개혁 심화) ②과학기술혁신 가속화(과학기술혁신 선도역할 강화; 3차 산업 구조 최적화) ③아름다운 톈진 추진(四清一綠; 도시 규칙건설 수준 제고; 도시 품질 제고) ④민생 개선, 사회사업 가속화(민생생활 질 제고; 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사회치안 혁신 및 강화)
허베이	①전면적 개혁심화 견지 ②산업구조조정 ③경제지속발전 추진 ④환경보호, 생태건설 적극 추진 ⑤특색 신형도시화 추진 ⑥민생강화	①경제안정 촉진 ②경제구조조정 견지 ③지속적인 생태환경 개선 ④ '삼농' 업무 ⑤징진지 협력발전 추진 ⑥개혁개방 심화 ⑦혁신구동 발전 전략 실시 가속화 ⑧민생개선 및 사회보장
산둥	①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정부행정, 농촌, 기업소유제, 시장시스템, 재세 등) ②산업구조 고도화 ③사회사업 및 민생보장 ④정부개혁	①뉴노멀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②개혁심화(시장경제, 삼농문제, 소득분배, 금융) ③구조조정·혁신형 발전 ④대외개방(일대일로, 투자유치) ⑤사회치안·민생안정 ⑥제노(齊魯)문화 육성 및 보급 ⑦법치질서 확립
상하이	①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조성,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②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 발전, 산업구조조정 ③과학기술 혁신, 지혜도시 및 인재도시 구축 ④민생개선 ⑤문화산업/사업 발전 촉진 도시·사회 관리 강화 ⑦도농통합 발전 역량 강화 ⑧자원절약·환경보호 강화	①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심화 추진,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②(과학기술 혁신)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가속화 ③(구조조정) '4개 중심(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 기능 업그레이드, 신형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 ④기본 공공서비스 강화, 민생 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⑤안전 방법 및 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도시관리 및 사회치안 수준 업그레이드 ⑥도농 차이 축소, 도농 발전일체화 추진 가속화 ⑦문화개혁 발전 추진, 도시 문화소프트파워 제고 ⑧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
장쑤	①산업구조조정 심화, 종합경쟁력 제고 ②경제효익 제고 통한 지속적인 발전 촉진 ③혁신발전 강화 ④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⑤신형도시화 및 도농일체화 추진 ⑥생태환경 개선 ⑦개방기회 확대, 개방형 경제 우위 증대 ⑧새로운 지역발전 배치, 조화발전 제고 ⑨문화발전 촉진 ⑩민생개선	①뉴노멀하의 경제안정 및 발전 유지 ②개혁개방 심화 추진 ③혁신구동 발전 강화 ④산업구조조정 심화 ⑤농업 현대화 추진 가속화 ⑥신형 도시화 및 도농발전 일체화 추진 ⑦구역 협력발전 수준 지속적 제고 ⑧생태문명 건설 추진 ⑨문화건설 강화 ⑩민생개선 및 보장, 사회치안 혁신
저장	①정부기능 전환 등 정부개혁 가속화 ②생태환경보호기 제 혁신 ③산업구조조정 통한 경제고도화 ④도농체제개혁, 신형도시화 추진 ⑤새로운 개방형 경제 구축, 개방을 통한 개혁·발전·전환 추진 ⑥사회·문화사업 혁신, 복지증진 ⑦사회관리방식 혁신 ⑧민생개선	①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발전활력 제고 ②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발전 지시대 지속 강화 ③국가 중대전략 실시, 저장성의 발전 업그레이드 ④첨단 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발전 촉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가속화 ⑤농업·농촌업무 강화, 도시-농촌 공생발전 촉진 ⑥생태환경 복원력 증진, 아름다운 저장성 건설 가속화 ⑦사회사업 발전 및 사회치안 혁신 추진, 민생 복지 증진 ⑧법치정부 건설
푸젠	①산업경쟁력 강화 ②농업현대화 수준 제고 ③신형도시화 추진 ④적극적인 개방 확대 ⑤대만과의 협력 심화 ⑥민생안전망 구축 ⑦생태문명 건설 추진	①투자·소비 증대 ②산업구조조정 및 발전, 혁신추구 ③농업발전 및 개혁 ④개혁(행정, 자원배분, 세수, 사회복지) ⑤개방협작(자유무역시범구, 해양 실크로드) ⑥신형도시화 ⑦대만과의 협력발전 ⑧생태문명 시범구 건설 ⑨민생안정
광둥	①지속적인 경제발전 촉진 ②경제체제개혁 중점 추진 ③혁신 광둥 구축 ④산업고도화 추진 ⑤대외개방 수준 제고 ⑥농업·농촌·농민 사업 강화 ⑦신형도시화 적극 추진 ⑧역내 도농 조화발전 제고 ⑨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 ⑩민생개선 중심의 사회건설 강화	①개혁심화(행정, 재정/금융, 투자관리, 국유기업, 사회관리) ②내수성장형 경제발전(투자확대, 소비육성, 기업성장) ③혁신형 발전(과학기술, 벤처) ④산업구조조정 ⑤신형도시화 ⑥농촌 및 농업 발전(삼농) ⑦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통한 개방수준 제고·일대일로 참여 ⑧에너지 자원 절약 및 저탄소녹색발전 ⑨사회보장 ⑩민생안정
하이난	①중점 분야 개혁심화(농촌, 국유기업, 재세금융, 투융자 체제, 교육문화, 의약보건, 개방 등) ②지속적 경제발전 (안정적 빠른 성장, 산업고도화, 도농통합발전, 신형도시화, 생태시범구 구축, 민생개선, 사회관리 혁신 등) ③서	①개혁(행정, 투자, 재정/조세, 농촌, 국유기업) ②개방확대를 통한 국제여행심건설 가속화 ③새로운 경제발전동력 모색(신소비영역, 현대서비스업 발전, 혁신추구) ④생태보호 및 도농일체화 ⑤인프라투자건설 ⑥해양경제발전 ⑦사회보장·민생안정 ⑧사회서비스 발전·사회질서유지



	비스형 정부 건설	
랴오닝	①현(县)지역 경제 및 농업 발전 ②5대 공업 공정 심화 실시 ③과학기술혁신 추진 ④지역경제와 서비스업 발전 ⑤대외개방 확대 ⑥3대 지역 발전전략 심화 ⑦생태환경 건설 ⑧인프라 건설 가속화 ⑨민생개선 ⑩민주법제와 정부개혁 강화	①전면적인 당중앙, 국무원의 진흥발전 조치 실현 ②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 ③중점영역 개혁 추진 ④혁신구동 발전전략 완성 ⑤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추진 ⑥농업현대화 촉진, 농촌개혁 발전 ⑦새로운 대외개방 실시 ⑧3대 구역 발전전략 및 신흥도시화 추진 ⑨생태문명 건설 강화 ⑩민생개선 중심의 사회건설
지린	①내수확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촉진 강화 ②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 ③현대농업 발전 ④대외개방 제고 ⑤신흥도시화 적극 추진 ⑥에너지절약·오염감축 및 환경보호 강화 ⑦민생개선 ⑧사회사업발전과 사회안정 유지	①안정적인 경제성장 ②구조조정 및 구조업그레이드 촉진 ③구역 협력 발전 촉진, 민영경제 발전, 금융시스템 구축 ④농업현대화와 신흥도시화 추진 ⑤개혁개방 심화 ⑥ 생태환경보호 강화 ⑦민생안정 ⑧사회사업 발전 ⑨정부의 공신력, 집행력 제고
헤이룽장	①현대 농업 발전 가속화 ②중점산업 발전 ③서비스업 발전 ④신흥도시화 적극 추진 ⑤러시아 중심의 대외경협 강화	①현대농업 발전 강화 ②산업구조조정 확대 ③다양한 영역 및 다각도의 서비스발전 추진 ④전면적 개혁심화, 발전동력 필요 ⑤러시아와의 교류협력 심화를 통한 대외개방 ⑥중대 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유지 ⑦ 신흥도시화 건설 추진 가속화
안후이	①중점 분야 개혁 추진(국유기업, 농촌, 재체제, 금융체제, 행정체제, 사회사업) ②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 ③산업고도화 ④신흥도시화 추진 ⑤농업현대화 가속화 ⑥대외개방수준 제고 ⑦문화번영발전 적극 추진 ⑧생태 환경 보호 강화 ⑨민생개선 ⑩사회의 조화·안정 촉진	①개혁(행정체제,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농촌, 재정/조세/금융) ②안정적인 경제성장 추구(투자, 소비, 대외무역, 민영경제, 지역개발전략) ③대외개방(관련 인프라 정비, 산업이전 수용) ④산업구조 업그레이드 ⑤농업발전방식의 전환 ⑥사람 중심의 신흥도시화 ⑦문화강성 건설 ⑧ 생태강성 건설 ⑨민생안정 및 사회보장 ⑩법치질서, 사회안정(의약품 및 식품안전 등)
장시	①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 발전동력 증대 ②유효수요 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추진 ③농업·농촌 발전기반 강화 ④혁신추진,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⑤지역발전전략 심화 ⑥대내외 경제개방 확대 ⑦사람중심의 도시화 추진 ⑧생태환경 보호 강화 ⑨민생사업 심화 ⑩사회사업·사회안정 촉진	①(성장)투자 확대 및 소비 촉진 ②개혁(행정, 사회신용체계, 국유기업, 재정/조세/금융) ③지역개발 ④구조조정(산업구조 조정, 혁신 주도의 경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등) ⑤농업(식량생산 유지, 농업발전 및 현대화) ⑥개방(해외직접투자 유치, 수출입 부가가치 제고, 장강삼각주/주장삼각주 등 주변 지역과의 협력발전(기업이전 등) ⑦생태환경보호 ⑧민생안정
허난	①정저우 공항경제종합실험구 구축 전면적 추진 ②공업 강화, 선진제조업 가속 발전 ③서비스업 빠른 성장 ④우위 농업 발전 견지 ⑤신흥도시화 과학 발전, 도농 통합발전 ⑥발전기반 강화 ⑦개혁심화, 개방확대 ⑧문화발전 ⑨녹색·순환·저탄소 발전 ⑩민생개선, 사회관리 혁신	①안정적인 경제성장 ②산업구조조정, 업그레이드 ③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 ④개혁(행정, 국유, 재정/조세/금융) ⑤대외개방(자유무역시범구) ⑥혁신추진 ⑦문화강성 ⑧생태환경보호 ⑨민생안정(취업, 소득증대) ⑩정부의 공신력/집행력 제고
후난	①개혁개방 목표 전면 추진 ②안정적 경제발전 촉진 ③인프라 건설 강화 ④에너지절약·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⑤신흥도시화 적극 추진 ⑥민생개선 ⑦공공서비스 및 사회사업 발전 추진	①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 모색(내수성장, 투자, 산업구조 조정) ②개혁개방(일대일로,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발전계획에 참여) ③혁신, 창업주도형 발전 전략 ④지역발전전략, 도시화,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 추구 ⑤양형사회 건설(생태보호, 자원절약) ⑥민생안정과 사회보장 ⑦법치정부
후베이	①시장주체 강화, 시장메커니즘 구축 ②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 ③내수확대, 안정적 성장, 내생동력 증대 ④경제구조조정, 발전방식전환, 산업고도화 ⑤다수 도시군 역량 강화, 지역조화발전 촉진 ⑥환경보호 및 녹색발전 ⑦사회사업 및 민생복지 확대 ⑧정부기능 전환, 관리능력 제고, 청렴정부	①안정적인 경제성장(유효투자 증대, 소비촉진, 실물경제 발전) ②산업구조조정(우위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③농업현대화(농촌인프라, 산업화, 경영체제) ④지역발전전략·장강경제벨트·현금경제·신흥도시화 ⑤개혁개방(행정체제재정/조세국유기업의 개혁, 자유무역시범구 경험학습, 일대일로 건설, 대외항로 건설, 기업 및 기술이전) ⑥생태환경보호(녹색산업) ⑦민생안정, 사회보장
산시(山西)	①전환발전 종합개혁시범구 전력 추진 ②경제의 안정적 발전 ③경제발전방식 전환 ④삼농(농업, 농촌, 농민) 건설 강화 ⑤특색 신흥도시화 추진 ⑥문화개혁 발전 ⑦민생·사회건설 강화 ⑧생태문명 건설 심화 ⑨생산 안전	①개혁개방(3대시범개혁, 국유기업, 투자제도, 재정조세금융, 지방채무), 혁신, 대외개방 ②투자, 소비촉진, 수출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③석탄개혁(소비, 생산공급, 관리제도/교역방식) ④산업구조조정(7대 산업 명시, 신에너지자동차 강조) ⑤삼농(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 ⑥주거환경개선/도시화 ⑦문화발전 ⑧민생안정, 사회보장 ⑨생태환경보호 ⑩근로안전강화
충칭	①안정적 경제발전 촉진 ②산업고도화 ③농업발전, 삼협 후속작업 추진 ④신흥도시화 ⑤경제체제 개혁심화 ⑥대내외 개방 확대 ⑦민생개선 ⑧사회관리체제 혁신 ⑨생태문명 건설	①5대 기능구 조화발전 추진 ②공업 클러스터 발전 수준 제고 ③ 서비스업 발전 ④신흥도시화 추진 심화 ⑤ '삼농' 및 삼사(三峡)담 후속 업무 지속 ⑥경제체제개혁 심화 추진 ⑦내륙 개방 확대 ⑧ 사회 보장 및 민생 개선 ⑨사회관리 혁신 ⑩생태문명건설 추진 등
네이멍구	①유효수요 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②구조고도화, 발전방식전환 ③농목업 발전수준 제고 ④경제체제개혁 통한 개혁개방 심화, 발전활력·동력 강화 ⑤민생개선, 생활수준 제고 ⑥생태환경 보호 강화 ⑦신흥도시화 및 도농통합발전 추진 ⑧민족문화구 구축 가속 ⑨사회관리체제 혁신	①내수확대, 경제안정성장 ②경제구조조정, 경제발전방식 전환 (기술, 서비스) ③농목업업 현대화 추진 ④개혁개방 전면 심화 ⑤신흥도시화 추진 ⑥사회보장, 민생개선, 인민 생활수준 제고 ⑦문화 발전 번영 촉진 ⑧사회사업 발전, 혁신사회관리 강화 ⑨생태문명건설추진 ⑩정부 집행능력 및 공신력 제고



	⑩ 정부기능 전환	
쓰촨	①경제체제 개혁심화, 개방 확대 ②혁신발전, 산업고도화 ③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 ④도농통합발전, 신형도시화 발전 ⑤안정적 투자, 소비수요 확대 ⑥다수 도시군 발전, 지역조화발전 ⑦민생개선 ⑧사회관리 강화	①경제 안정성장 ②혁신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③중점영역 개혁 심화 ④농업발전 및 농민수입 증가 촉진 ⑤개발개방수준 확대 ⑥신형도시화 추진, 도농일체화발전 촉진 ⑦민생 개선 보장 확대 ⑧생태환경보호 강화, 도농환경수준 개선 ⑨법치 추진, 사회 화합안정 추구
산시(陝西)	①중점분야 성장 통한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②현대 농업원구 건설,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 ③신지주산업 육성 통한 경제고도화 ④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⑤민생개선 ⑥생태환경 건설 ⑦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으로 내륙개발 가속화 ⑧중점분야 개혁 심화	①경제운용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 ②개혁 심화 ③실크로드 경제벨트 새로운 기점 건설 ④신형 도시화 발전 ⑤환경문제 해결 ⑥민생개선 사회 보장업무 확대
광시	①개혁혁신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증대 ②공업 중심의 산업체계 구축 ③교통 중심의 인프라 구축 강화 ④중점 분야에 투자의 안정적 증대 ⑤북부만경제구 등 지역개발 및 지역조화발전 촉진 ⑥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건설 ⑦아세안 등 개방협력 강화 ⑧민생개선, 사회사업 집중 발전	①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 ②투자자와 소비의 역할 강화 ③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④특색의 현대산업체계 구축 ⑤현대 생태문명체계 건설 ⑥민생 사회사업 강화, 공공서비스 체계 강화 ⑦ '双核驱动' 전략 실시, 3개 구역(북부만경제구, 시장(西江) 경제벨트, 주어요장(左右江) 혁명노구)의 통합발전 ⑧ '일대일로' 적극 참여, 개방협력수준 제고 ⑨전면 개혁 심화, 시장 및 사회 활력 부여
칭하이	①질개선 및 효율증대 통한 경제업그레이드 ②환경, 생태 강화 ③민생개선 ④개혁개방 심화, 활력있는 발전환경 창조 ⑤정부 관리능력 강화	①투자 확대(15%) ②삼농 강화, 농촌 생산력 확대 촉진 ③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경제 효율성 업그레이드 ④생태문명건설 추진 ⑤신형도시화 및 도농협조발전 추진 ⑥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⑦민생보장수준 제고 ⑧빈곤개선, 개발 주력 ⑨재정금융의 역할 강화
윈난	①유효수요 확대, 지속적 경제성장 ②삼농사업 강화 ③산업구조조정, 발전방식 전환 ④인프라구축 강화 ⑤신형도시화, 조화발전 ⑥접경지역 중심 개방 강화 ⑦민생개선 ⑧생태문명 건설 ⑨민주법치 강화 ⑩법치행정, 서비스형 정부 건설	①내수 촉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추진 ②기초인프라 건설 강화(교통 네트워크, 항공 네트워크, 에너지 네트워크, 수리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5대 네트워크' 건설) ③경제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④ '삼농' 업무 완성, 농업현대화 추진 ⑤신형도시화 건설 ⑥중점영역 개혁심화, 발전동력 강화 ⑦대내대외개방 확대 ⑧민생 보장 및 개선, 사회 화합 안정 촉진 ⑨생태건설 및 환경 보호 강화 ⑩법치 정부 건설 강화
구이저우	①산업구조조정 ②도시화 수준 제고 ③중점발전 플랫폼 구축 ④농업발전 ⑤특색 농촌 발전계획 실시 ⑥투자확대, 인프라 구축 심화 ⑦대외개방 ⑧환경관리·생태보호 강화 ⑨교육·과학기술사업 발전 ⑩민생개선, 사회관리 강화	①혁신구동능력 제고 ②5대(IT, 의약, 유기농업, 문화관광, 건축재료) 신산업 육성 ③신형도시화 추진 ④농업효율성 제고, 농민 소득증가 촉진 ⑤투자 및 소비 수요 확대 ⑥생산력 배치 최적화 ⑦환경보호 및 생태건설 강화 ⑧사회사업 확대 조화 안정 추구 ⑨복지, 민생(취업) 프로젝트 확대
티벳	①농목업 및 인프라 기반 구축 ②특색산업 및 생태문명 추진 ③민생 및 공공서비스 개선 ④개혁개방 및 지원 장려 ⑤과학기술 및 인재 강화 ⑥민족단결 및 사회안정 공고화	①농목축업 및 기초인프라 2대 기초 강화 ②특색산업 및 생태문명 건설 2대 중점 특화 ③민생 개선 및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강화 ④개혁개방 및 대외 지원 2대 동력 활성화 ⑤과학기술 및 인재 강화 ⑥민족 단결 및 사회안정 2대 기초 다지기
닝샤	①각 분야 개혁으로 발전동력 증대 ②산업고도화 통한 경제고도화 ③공간발전전략 및 도농일체화 추진 ④사회사업 발전,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⑤민생계획 추진 ⑥정부서비스 수준 제고	①경제 성장 추세 지속 ② '뉴노멀' 적응, '4개 닝샤' 건설 ③개혁혁신을 바탕으로, 발전의 내생동력 강화 ④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성장의 기초를 다질 것 ⑤구조조정 주력 ⑥신형도시화 가속화 ⑦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전략적 지점 조성 노력 ⑧민생사업주력, 행복지수 제고 노력
간쑤	①경제발전방식 전환 통한 도약발전 ②프로젝트 추진으로 발전동력 증대 ③빈곤해소 사업 강화, 빈곤계층 소득증대 ④신형도시화·도농일체화 추진 ⑤화하(华夏)문명계승 혁신구 구축 통한 문화발전 ⑥민생개선 ⑦생태안전 종합시험구 주축으로 환경보호 역량 강화 ⑧전면적 체제혁신, 개혁개방 확대	①개혁개방 추진으로 발전 동력 강화 ②경제 안정적 성장 유지 ③전략적 신산업 육성, 구조조정 성과 ④빈곤해소 ⑤사회보장강화, 민생 개선, 사회사업발전 전면 추진 ⑥정리개혁 실시
신장	①경제체제개혁 심화 통한 빠른 경제발전 ②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중심의 전방위 개방 ③문화체제개혁 통한 현대문화 발전 ④사람중심의 사회사업 추진 ⑤생태환경 개혁 ⑥민주입법 행정 능력 제고	①사회안정 유지 ②중점영역 개혁 실현 ③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 구역 건설 실현 ④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구조 최적화 ⑤ '삼농' 강화, 종합 도농발전 ⑥투자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 견인 ⑦사회보장 및 민생개선 ⑧사회사업 건설 강화 ⑨지속 가능한 생태문명건설 강화 ⑩ 법치정부 건설 강화

자료: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정지현(2014),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KIEP 지역경제 포커스, pp. 11~12.

부록 표 2. 중국 각 지역의 고정자산투자 부문별 투자 집중도(2009~13년 평균)

(단위: %)

	광업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전체	4.5	28.0	27.1	29.7
베이징	0.2	7.0	57.5	25.6
톈진	4.5	32.0	21.0	28.9
허베이	3.1	39.2	23.2	23.3
산시(山西)	16.6	19.9	20.6	33.0
네이멍구	10.9	26.9	16.1	34.2
랴오닝	3.2	35.3	27.2	22.1
지린	5.7	43.3	17.1	22.5
헤이룽장	7.6	27.3	21.8	26.7
상하이	0.0	20.8	43.3	27.1
장쑤	0.3	49.0	24.3	17.4
저장	0.2	32.8	35.2	24.2
안후이	2.8	37.8	30.1	19.8
푸젠	1.4	29.5	28.2	31.4
장시	2.5	50.0	15.2	20.6
산둥	2.1	40.9	24.6	19.7
허난	3.9	43.6	24.2	18.1
후베이	1.8	36.6	22.3	27.9
후난	3.7	32.9	22.4	29.8
광둥	0.6	25.2	33.5	30.2
광시	3.0	29.8	23.5	31.9
하이난	0.9	7.5	50.2	29.9
충칭	2.0	26.4	33.6	29.1
쓰촨	2.8	25.9	27.9	34.7
구이저우	8.6	16.0	28.6	40.6
윈난	4.5	14.6	28.0	41.7
티벳	4.7	6.3	15.2	59.4
산시(陝西)	8.6	19.8	28.5	31.4
간쑤	5.5	17.7	28.9	36.9
칭하이	6.1	26.1	20.3	37.4
닝샤	7.9	27.3	26.0	31.1
신장	14.9	21.4	21.6	32.8

주: 1) 광업을 예시로 하여 투자 집중도를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음.

- ① 2009년 A지역 광업 투자액/A지역 전체 고정자산투자+2010년 A지역 광업 투자액/A지역 전체 고정자산투자+2011년 A지역 광업 투자액/A지역 전체 고정자산투자+2012년 A지역 광업 투자액/A지역 전체 고정자산투자+2013년 A지역 광업 투자액/A지역 전체 고정자산투자.
- ② ①의 값을 5로 나누어 A지역의 광업투자 비중 산술평균값을 구함.
- ③ 31개 지역의 ②를 합산한 후 31로 나누어 중국 전체 광업투자 비중의 산술평균값을 구함.

2) 해당 지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을 음영으로 표기하고, 해당 부문에서 최대값을 기록한 지역은 음영 및 붉은색으로 표기함.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 기획재정부. 2014. 「현 부총리,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 가져달라"」. 보도자료. (2월 24일)
- 노수연. 2011.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중국제정경제연구원』, 제11-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광수경제연구소. 2015. 「줄어든 중앙과 지방의 GDP 통계오차」. 『중국경제』, 제15-05호
- 김영선. 2015.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EP 아시아태평양실·구미유라시아실 공동 동향세미나(2월 6일) 발표자료. <http://ceer.kiep.go.kr/research/data.cer>(검색일: 2015. 3. 4).
- 뉴시스. 2015. 「서울시, 녹색·친환경 국내기업 중국진출 측면지원」. (2월 10일)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보도자료
- 정지현. 2014.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지역경제포커스』, 8-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중한국대사관. 2014a. 「중국 일일경제 동향」. (1월 15일)
- _____. 2014b. 「중국 일일경제 동향」. (12월 11일)
- 한국은행. 2012.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요인」. 『국제경제정보』, 제2012-30호, p. 1.

[중문자료]

- 甘肃省人民政府. 2015. 「甘肃省政府工作报告」.
- 江西省人民政府. 2015. 「江西省政府工作报告」.
- 江苏省人民政府. 2015. 「江苏省政府工作报告」.
- 『经济观察报』. 2015. 「地方报送项目8000亿 银行慎对PPP」. (2월 14일)
- 广东省人民政府. 2015. 「广东省政府工作报告」.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5. 「广西壮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贵州省人民政府. 2015. 「贵州省政府工作报告」.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5. 「国家发展改革委组织召开全面贯彻落实《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工作会议」. (2월 27일)
- 国家统计局. 2014. 「第三次全国经济普查主要数据公报」.
- _____. 2015a. 「2014年全国固定资产投资(不含农户)增长15.7%」. (1월 20일)
- _____. 2015b. 「2014年全国房地产开发和销售情况」. (1월 20일)
- 『汽车商报』. 2015. 「“双限”成中国大城市归宿?」. (2월 15일)
- 吉林省人民政府. 2015. 「吉林省政府工作报告」.
- 内蒙古新闻网. 2014. 「世界五百强苏太华系千亿投资内蒙古」. (12월 28일)
- 内蒙古自治区人民政府. 2015. 「内蒙古自治区政府工作报告」.
- 『瞭望东方周刊』. 2014. 「外资水务十年检讨」. (4월 24일)
- 『每日经济新闻』. 2013. 「李克强解读GDP数据:1个百分点带动130万人就业」. (11월 7일)
- 『每日经济新闻』. 2014. 「发改委四季度批复超万亿元项目 交通成主要发力点」. (12월 17일)
- 福建省人民政府. 2015. 「福建省政府工作报告」.
- 北京市人民政府. 2015. 「北京市政府工作报告」.
- 四川省人民政府. 2015. 「四川省政府工作报告」.
- 山东省人民政府. 2015. 「山东省政府工作报告」.
- 山西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3. 「山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山西省人民政府. 2015. 「山西省政府工作报告」.
- 上海市人民政府. 2015. 「上海市政府工作报告」.
- 上海证券报. 2015. 「20省份全面布局“一带一路” 今年进入实质操作阶段」. (1월 28일)
- 西藏自治区人民政府. 2015. 「西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陕西省人民政府. 2015. 「陕西省政府工作报告」.
- 新疆维吾尔自治区人民政府. 2015. 「新疆维吾尔自治区政府工作报告」.
- 新浪财经. 2015. 「各省份PPP项目都涉及哪些行业?」. (2월 4일)
- 新华网. 2014a. 「李克强:五举措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 打造经济新引擎」. (5월 14일)
- _____. 2014b. 「国务院常务会议部署在更大范围推广中关村试点政策」. (12월 3일)
- 安徽省人民政府. 2015. 「安徽省政府工作报告」.
- 宁夏回族自治区人民政府. 2015. 「宁夏回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辽宁省人民政府. 2015. 「辽宁省政府工作报告」.
- 云南省人民政府. 2015. 「云南省政府工作报告」.
- 人民网. 2014. 「青海首向民资开放千亿项目」. (8월 29일)
- _____. 2015a. 「辽宁蓝皮书:2015年辽宁GDP增速7.0%左右」. (1월 21일)
- _____. 2015b. 「2014年河北固定资产投资完成26671.9亿元 增15%」. (1월 27일)
- _____. 2015c. 「湖北首个PPP项目通过“物有所值”评价」. (2월 4일)
- _____. 2015d. 「汕头海湾隧道启动建设 中信地产PPP实践迈出坚实的一步」. (2월 5일)
- _____. 2015e. 「31省GDP目标呈“新常态” 广东GDP总量连续26年居首」. (2월 13일)
- 『人民日报』. 2014. 「经济运行呈现新特征 - 新常态下的中国经济(中)」. (8월 6일)
- 浙江省人民政府. 2015. 「浙江省政府工作报告」.
- 财界. 2015. 「“PPP模式”能否化解地方财政危机?」. (2월 9일)
- 财政部. 2014. 「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 中央政府门户网站. 2015. 「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立法工作领导小组成立」. (1월 20일)
- 重庆市人民政府. 2015. 「重庆市政府工作报告」.
- 重庆市统计局. 2015. 「2014年重庆投资逆势企稳」. (2월 3일)
- 中国经济网. 2015. 「发改委:2015年东北经济下行压力会更大」. (2월 27일)
- 中国网. 2006. 「黑龙江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 中国新闻网. 2015. 「山西PPP模式今年将扩容 发力保障房建设」. (2월 15일)
- 中国人民银行哈尔滨中心支行. 2014. 「2013年黑龙江省金融运行报告」.
- 『中国证券报』. 2015. 「一带一路规划进入最后冲刺 投资望达1.6万亿美元」. (1월 7일)
- 中国投资指南. 2015. 「南昌首批PPP模式项目清单 外资民资均可参与」. (2월 3일)
- 中国投资协会项目投融资专业委员会. 2014. 「十三五规划前瞻下的交通产业PPP合作模式」. (12월 9일)
- 『中国环境报』. 2015. 「桑德国际签约污水处理PPP项目」. (1월 6일)
- 中央政府门户网站. 2015. 「吉林省2014年经济运行总体平稳」. (1월 30일)
- 天津市人民政府. 2015. 「天津市政府工作报告」.
- 天津市统计局. 2015. 「2014年我市消费品市场情况」. (월 21일)
- 天津统计信息网. 2015. 「2014年我市全社会固定资产投资情况」.
- 青海省人民政府. 2015. 「青海省政府工作报告」.
- 河南省人民政府. 2015. 「河南省政府工作报告」.

河南省政府采购网. 2015. 「河南省政府和社会资本合作 (PPP) 推介项目名单 (第一批)」.

河北省人民政府. 2015. 「河北省政府工作报告」.

『哈尔滨日报』. 2015. 「哈尔滨市11个项目实施PPP模式」. (1월 30일)

海南省人民政府. 2015. 「海南省政府工作报告」.

湖南省人民政府. 2015. 「湖南省政府工作报告」.

湖北省人民政府. 2015. 「湖北省政府工作报告」.

黑龙江省人民政府. 2015. 「黑龙江省政府工作报告」.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CEIC Database. <http://www.ceicdata.com>(검색일: 2015. 2. 23, 3. 8).

人民网, 聚焦2015地方两会. <http://leaders.people.com.cn/GB/70158/392237/index.html>(검색일: 2015. 2. 23).

中国国家统计局, 国家数据.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검색일: 2015. 2. 13).

中国新闻社, 聚焦海南两会, 热点关注. <http://www.hi.chinanews.com/zt/2014/lianghui/more/940.html>(검색일: 2015. 2. 24).

中国安徽网络电视台, 2015安徽两会. http://sp.ahtv.cn/c/2015/0119/1413_list_2.html(검색일: 2015. 2. 24).